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3748.37	↑ 코스닥	865.41
	(+91.09)		(+0.69)
↑ 금리 (미국 9년)	2.550	↓ 환율 (원·달러)	1417.90
	(+0.030)		(-3.40)

AI發 반도체 랠리, 코스피 ‘새 역사’

삼성·하이닉스 동반 급등
외국인 이달만 5조 순매수
모건스탠리 “4200도 가능”
환율 변수에도 낙관론 우세

16일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3750선에 바짝 다가서며 국내 주식 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기대감,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진입 가능성 등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3659.91)와 종가 최고치(3657.28)를 모두 갈아치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5000억원 가량 사들이며 시가총액은 3085조원으로 불어났다. 외국인들의 강한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 속에 삼성전자는 2.84% 오른 9만7700원, SK하이닉스는 7.10% 오른 45만2500원에 마감했다. 두 반도체 기업 모두 사상 최고가다. 반도체 투톱이자 국내 증시 투톱이 파죽지세로 오르면서,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까지 높아졌다.

1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



코스피가 전 거래일(3657.28)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홍보관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이며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2.96%, AMD 9.4%, 브로드컴은 2.09% 상승 마감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3% 이상 올랐다.

글로벌 AI 투자 열기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엔비디아,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6655억원 순매수했다. 10월들어 누적 매수액은 5조4825억원이다. 이중 삼성전자 비중이 70%(3조7056억원)에 달한다.

그간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

한 매도 의견을 자주 냈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최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6000원으로 올렸고,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4만원으로 높이 잡았다. AI발 반도체 수요 증가로 디램(DRAM)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발생해, 이 분야 강자인 삼성전자가 슈퍼사이클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지난 1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 연설에서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그시점이 앞으로 몇 달 내 올 수 있다”고 했다.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는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넘은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종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3314.53을 기록했고, 채 한 달이 안 된 2일 3500선마저 뚫었다. 올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56%로 주요 30여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투자 전망은 장밋빛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슈퍼사이클과 개혁의 결합’ 보고서를 내고 내년 6월까지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3250에서 3800으로 올려 잡았다. 기술업종 강세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이 맞물린다면 42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증시 활성화 정책이 부진하는 등 리스크가 생길다면 31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트럼프 리스크(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부담)에 따른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증시 이탈)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쪼टा운’이 지난1일(현지시간)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확대 가능성은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K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 독자적 기술로 혁신 주도

차세대 바이오 혁신을 이끌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오는 10월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과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각자의 독자적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의 임상적·산업적 가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국정과제로의 동물대체시험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 청중에게 혁신 기술과 산업 전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 제 :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 2025년 10월22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참가신청 : 2025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co.kr

metro[®]

최태원 1.4조 재산분할 뒤집혔다 盧비자금은 불법, 법적보호 안돼

대법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SK, 경영권 리스크 일시 해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면서 SK그룹이 우려하던 경영권 리스크도 일단은 한숨 돌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



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면서 이 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을 사돈 관계에 제공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 자금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李 “‘일단 안 돼’ 대신 ‘일단 돼’로 마인드 바꿔야”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분야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

실에서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중요한

▲與 “국감서 ‘쿠팡 불기소 윗선 외압’ 폭로 나와… 이러니 검찰개혁”
▲김민석 총리 “부마민주항쟁 진실 규명하고 시민 명예 회복에 모든 노력”

/사진 뉴시스

▲장동혁 “김현지, 이 대통령과 한몸처럼 움직인 사람… 실제 드러날 것”
▲외교부, 정동영 북미회담 전망에 “아는 바 없어… 필요시 적극 지원”

/서예진 기자 syj@

▲주한미군, 韓 정부에 ‘특검 압수수색’ 항의 서한
▲유철환 권익위원장, 청렴도 지적에 “송구하고 드릴 말씀 없어… 시정하겠다”

통화스와프·환율 쟁점… 韓·美 관세 후속협상 마무리 박차

韓·美 재무장관, 원정·홈 회동

구윤철 부총리, 美 G20 기간 스콧 베선트 장관과 회동 전망
3500억 달러 투자방식 논의
韓, 상설 통화스와프 요구 상태

한·미 양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후속협상을 끝맺음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엔 인천 영종도에서 잇따라 마주한다.

특히 양국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낼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약을 비롯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원-달러 환율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앞서 약속한 3500억 달러(496조 원)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지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장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한국이 금액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전액 현금이나, 아니면 일부 신용·보증을 통한 투자 허용이나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도 및 만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우리 측은 대미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도·만기의 제한이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스와프가 달러의 과잉 공급 및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구 부총리는 미국 현지를 찾아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의 방문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G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맞물려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베선트 장관과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올해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관세협상을)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미국 측 입장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실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내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언급에 따라 인천에서의 진전도 관측된다. 다음 주 인천 영종도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10월21~22일)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10월21~23일)가 각각 열린다.

이어 10월31일~11월1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APEC 기간 중 내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푼 꺾인 가계대출… 기업은 한달새 5.3조 ↑

한은, 9월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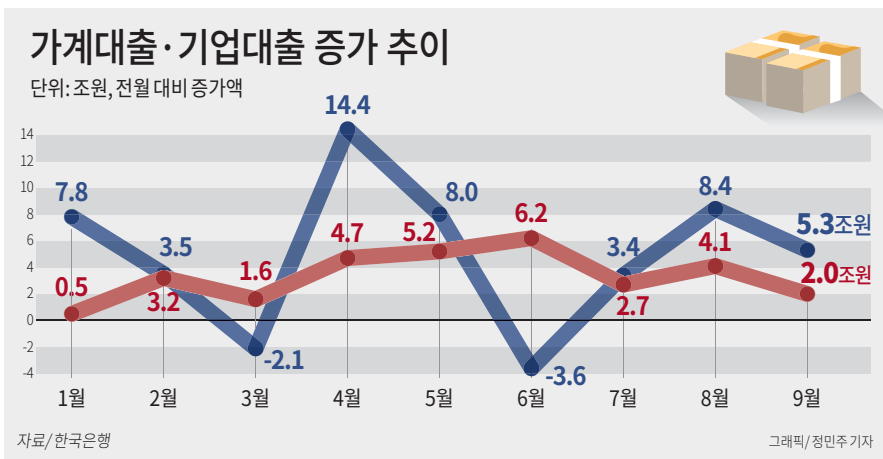
6·27 대책에 가계대출 2조 증가 그쳐
기업대출잔액 1360조 꾸준히 증가

가계 대출이 한푼 꺾였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한 달 새 2조원 증가에 그친 것. 반면 기업대출은 은행 대출 영업 확대와 주식 자금 등으로 한 달 새 5조3000억원 증가해 월평균 증가액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9월 기준 117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잔액은 932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5만4000호 ▲7월 3만5000호 ▲8월 3만4000호로 감소했다. 거래량이 감소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5000억원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며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이 더해지며 감소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360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조3000억원 늘었다. 1월부터 9월 까지 기업 대출은 45조원으로 월 평균치는 5조원이다. 평균치를 웃도는 셈이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294조3000억원

으로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한 기업이 많았다"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도 증가해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065조8000억원으로 같은기간 4조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주요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확대했다"며 "추석 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차, 中 맞춤형 전기차 '일렉시오' 출격

베이징현대, 사전판매 시작

중국 현지시장 반등에 초집중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현지 맞춤형 모델로 재도약에 나선다. 기아가 지난해 중국 현지 맞춤형 차량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현대차도 맞춤형 모델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사태 이후 추락한 현지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BHMC)는 이날부터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일렉시오의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일렉시오는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첫 전기차다. 개발은 물론 생산까지 모두 현지에서 이뤄진다. 크기는 전장 4615mm, 전폭 1875mm로 기아의 전기 SUV EV5와 비슷하다. 중국 BYD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최대 용량은 88.1kWh로 중국



현대차가 중국 현지 맞춤형 전차 모델로 선보인 준중형 전기 SUV 일렉시오.

인증 기준 1회 충전 752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충전 시간은 30%에서 80%까지 27분 소요된다. 내년에는 일렉시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준중형 전기 세단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가 현지 맞춤형 모델로 판매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가 일렉시오로 중국 시장에서 반등에 성공할 경우 현지 철수를 준비했던 부품 업체들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

K-바이오, 혁신 기술로 미래 연다

메트로경제 22일 '제약·바이오 포럼'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기술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동물 대체시험법으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비롯, 효율적인 약물전달로 신약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도 소개된다.

오는 22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리는 '2025 제약·바이오 포럼'에는 'K바이오

혁신·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혁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인벤티지랩은 독자 기술인 'IVL-DrugFluidic'을 보유하고 있다. IVL-DrugFluidic은 고분자 마이크로 임자를 활용해 장기지속형 주사체형을 구현하는 기술로 기존 약물(AP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 지속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형화 제조 플랫폼이다. 인벤티지랩은 이 플랫폼

을 활용, 한달간 지속할 수 있는 비만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개발 중이며, 보건복지부 과제를 통해 장기지속형 약물중독치료제 IVL3004를 개발 중이다. 최근 약물중독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인 비비트롤(Vivitrol) 대비 뚜렷한 우위를 나타낸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기조강연을 맡아 '미세유체 기반 플랫폼이 이끄는 차세대 제형 혁신'을 주제로 독자 플랫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불법자금 미보호 원칙 구체화 첫 사례

≫ 1면 '최태원 1.4조 재산…'서 계속

이는 불법자금인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경영권 확보 목적의 재산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 과반 이전 친인척이나 사회단체 등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급여를 반납한 행위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는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2~2018년 ▲SK㈜ 주식 329만 주를 친인척 18명에게 ▲SK C&C 주식 9만여 주를 한국고등교육재단에 ▲SK(株) 주식 20만 주를 최종현학술원에 각각 증여했다. 또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927억 원을 지원하고 증여세 246억 원을 대신 납부한 바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채식 초코파이·리브랜딩 크런치바… 현지화로 1조 시대 열다

〈전체 해외 매출〉

K-푸드 세대교체



롯데웰푸드가 글로벌 무대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해외 사업 매출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현지 법인 성장과 ‘빼빼로’ 같은 수출 효자 브랜드가 쌍끌이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의 도약 속도를 높이고 있다. 〈편집자주〉



‘롯데 인디아’(LOTTE India) 하리아나 공장 내 롯데 초코파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롯데웰푸드는 현재 인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기에, 러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등 7개국에서 21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해외 법인 매출은 지난해 8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내 법인의 수출액 2049억원을 합산하면 전체 해외 매출은 1조 616억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매출(4조 443억원) 대비 비중도 26%를 넘어 글로벌 사업이 확실한 축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롯데웰푸드가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은 인도다. 2004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인도에 진출한 이후 제과업체 패리사사, 2017년 빙과업체 하브모어를 잇달아 인수하며 양대 축을 구축했다. 올해 7월 두 회사를 합병해 ‘롯데 인디아’(LOTTE India)로 통합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롯데 인디아는 오는 2032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제품은 단연 ‘롯데 초코파이’다. 현지 초코파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며 연간 8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특히 채식 인구가 많은 인도 특성을 반영해 동물성 젤라틴 대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베지테리언 초코파이’로 현지화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첸나이 공장에 약 300억원을 투입, 초코파이 3라인을 증설하며 공급 확대에 나섰다.

또 다른 성장동력은 빼빼로다. 지난 7

월 인도 하리아나 공장에서 빼빼로 라인을 가동하며 첫 해외 생산기지를 마련했다. ‘오리지널’과 ‘크런키’ 2종을 시작으로 수도 델리를 거점으로 전국 유통망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목표 매출은 63억원. 고온다습한 인도 기후에 맞춰 자체 개발한 ‘내열성 초콜릿’과 현지 최적화 원료를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7개국 21개 생산기지 운영
해외 매출 1조616억 달성
전체 매출 대비 26% 차지
인도 중심 글로벌 확장 가속
수출기업서 현지생산 전환**

롯데웰푸드는 생산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완공된 푸네 신공장은 축구장 8개 크기(6만㎡) 규모로, 기존 구자라트 공장보다 6배 크다. 9개 라인을 가동 중이며 2028년까지 1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죠스바, 수박바 등 K-빙과 브랜드를 본격 생산해 인도 내수뿐 아니라 주변국 시장까지 겨냥한다. 롯데웰푸드는 자동화 설비와 한국의 선진 생산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고, 빙과 매출은 올해만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법인뿐 아니라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 성과도 눈에 띈다. 지난해 수출액은 20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이 중 ‘빼빼로’는 701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2023년 대

비 30% 성장한 수치로, 수출 물량이 처음으로 1억개를 돌파했다.

빼빼로는 현재 57개국에 수출 중이다. 주요 시장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필리핀 중심의 동남아 지역. 지난해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광고, 글로벌 빼빼로데이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미국 현지 대형 유통망인 코스트코에도 ‘빼빼로 어썸트’ 제품을 입점시켜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빼빼로 수출액은 이미 417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를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인도 하리아나 공장의 빼빼로 라인은 향후 인도 내수와 주변국 수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빙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03억원에서 2023년 248억원, 지난해 26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죠스바, 스쿠류바, 수박바 등 국내 대표 빙과 브랜드가 K-아이스크림으로서 인기를 끌며 북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판로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롯데 인디아는 최근 프리미엄 빙과 제품 ‘크런치바(Krunch)’도 출시했다. 한국의 ‘돼지바’를 현지 문화에 맞게 리브랜딩한 제품으로, 출시 3개월 만에 100만개 판매, 약 1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푸네 신공장에서 생산된 크런치바는 ‘Taste The 4D’ 캠페인으로 K-팝 문

화와 연계한 마케팅을 펼치며 인도 Z세대 소비자 공략에 성공했다.

롯데웰푸드의 해외 성공 비결은 ‘현지화’와 ‘K-컬처 결합’으로 요약된다. 채식 문화에 맞춘 초코파이, 종교·문화적 요인을 고려해 리브랜딩한 크런치바, 기후 특성에 맞춘 내열성 초콜릿 등은 철저히 현지 소비자에 맞춘 전략이다. 동시에 K-팝, K-컬처 요소를 결합해 젊은 소비자와 감성적으로 연결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채식 초코파이로 현지화 성공
돼지바 리브랜딩 ‘크런치바’
내열성 초콜릿으로 기후 대응
K-컬처 결합 마케팅 강화
젊은세대 소비자 공략 확대**

업계 관계자는 “롯데웰푸드가 인도를 전초기지로 삼아 글로벌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며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K-컬처 기반 마케팅이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통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웰푸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외 매출 비중을 더욱 높여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빼빼로와 초코파이 같은 장수 브랜드를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새롭게 개발된 제품군을 통해 ‘K-푸드’의 저변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웰푸드 ‘Krunch’ 인도 옥외광고.



300억 투자한 인도 첸나이 초코파이 제3라인.



‘롯데 인디아’(LOTTE India) 하리아나 공장 전경.

/롯데웰푸드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한쪽 어깨가 젖어가도
국민을 위한 우산이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국민 곁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평온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뛰고 있는
13만 명의 경찰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찰의 날 80주년
그 변함없는 헌신을 기억하며
KB금융그룹과 국민이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10월 21일은 경찰관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경찰의 날'입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KB금융그룹

與野, ‘대법 현장검증’ ‘욕설문자’ 대립에 국정운영은 뒷전

국정감사 4일차

법사위, 감사원 국감 전부터 대립
대법 재판기록 열람은 ‘허위사실’
과방위, 김우영-박정훈 감정싸움
항공우주청·원자력안전청 관련
질의 못한 채 파행… 비공개 진행

여야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들여다보기보다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법사위 국감 파행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기도 전에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대립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언론과 결탁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에서 ‘재판 기록’ 자체를 보려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때) 재판 기록을 보려다니거나 대법관의 PC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증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하기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있다. /뉴스1

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의 평수를 보려고 했고, 대법원의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크기를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의 명예훼손을 해도 유분수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지극히 유감이다. 어제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두 가지를 명백하게 밝혔다”며 “하나는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건에 관해 예외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 판결로 향간에 의혹이 제기돼서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보고 재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제출했고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반복적으로 위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의원

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냐”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감사를 중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김우영·박정훈 감정싸움으로 또 파행

과방위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풀리지 않는 감정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두 의원은

먹살잡이, 욕설문자 공개 등 국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갈등으로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회 중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우영 의원에게겐 전혀 미안하지 않다. (욕설 문자를 공개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화 번호가 그대로 공개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5일에 김 의원이 소회의실에 와서 제 먹살을 잡고 ‘내가 뭘데 나가라 마나’ 소리지르고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며 “평소에 감정조절이 잘 안되나 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저장 안 했다. 이를 (화면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쳤는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국회는 헌법기관이다.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 않다. 공적 업무상 휴대폰 번호를 수집해서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오전에 과방위는 항공우주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채 파행했다. 결국, 두 의원 간 대립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취재진에게 나가라고 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제조업 공동화 대응책으로 ‘생산 세액공제’ 제시

美 관세정책 대응 민생현장 간담회 위험 처한 모든 업종 지원 대상 시장 친화 인센티브 제도 마련

국민의힘이 16일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 세액공제’ 제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자도차 부품업체 지엠비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는 없을 것 같다”며 생산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장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 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낼 때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약속드리는 생산 세액공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첫째, 일부 국가 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철강 등과 같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공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성장이 곧 우리 중소기업 체력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한민국의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와중에 산업을 지탱하던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참담하다. 불과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분야의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며 “이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

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에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10월 말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다. 내가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쥐어야 한다’라고 또 공언했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대미 관세 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로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마·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관세 협상의 돌과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박태홍 기자

구윤철 “구조적 전환 대응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G20 회의, IMF·WB 연차총회 참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무대 연설에서 적극재정을 통한 성장전략 제고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높은 분야 위주의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

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그의 첫 다자외교 연설이다.

구 부총리는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기술혁신·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해,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혁신경제·AI대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AI반도체와 제조업 등의 AI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전

(SMR)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계획도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를 주제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체계 고도화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또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채무 재조정과 부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주요 7개국(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한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달 트럼프 방한… 한미·미중회담 전망

북미 정상회담 움직임은 아직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화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한국에) 도착해 아마 30일까지(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언저리(체류 기간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이었다면 이 기간에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

나면 지난 8월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위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해외주식 결국엔 편다니까!

어려운 해외주식도 쉽게!
그러니까
1타지!

- ✓ 노베이스 초보 투자자 ☆☆☆
- ✓ 해외주식만 몇 년째인 N수생 투자자
- ✓ 열심히 할수록 손해보는 현역 투자자

모두 집중!

수학 일타강사
이미지



해외주식 꿀팁
보러가기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국가별 상이(미국 0.25%, 중국 0.3%)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주식 매매시 0.00841% 제비용을 부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805호(2025.07.07~2027.07.06), CC브랜드250702-0027

日 여행객 급증에 카드사도 ‘출정’ 편의점·브랜드 제휴로 고객 잡기

현대카드, 세븐일레븐과 손잡고
韓 관광객에 PB상품 무료 제공

삼성카드, JCB 카드 4종 출시
해외결제 30% 캐시백 등 이벤트

우리카드, 위비트레블 제이 카드
현지 3대 편의점 50% 캐시백



JCB브랜드로 발급 가능한 삼성카드 4종 이미지

/제이씨비

카드사들이 일본 결제시장 공략에 나섰다.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일본 유통기업 및 카드결제 브랜드사와의 협업은 물론, 일본 여행 맞춤형 카드 등을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일본 여행객을 겨냥한 카드를 새로 출시하며 고객 확보에 나섰다. 편의점·편집숍 등 여행객이 자주 찾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엔화 약세 흐름으로 일본 여행객이 증가했다. 실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해외여행 방문지로 일본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20.6%), 중국(7.6%), 필리핀(4.7%)이 그 뒤를 이었다.

현대카드는 일본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 재팬’과 손잡고 제휴 서비스를 선보인다. 일본에 있는 세븐일레븐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세븐일레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1000엔 이상 결제하면 스탬프가 지급되며, 이를 이용해 세븐일레븐 PB 상

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본 도쿄 라포레 하라주쿠에 있는 편집숍 GR8을 방문한 고객에게 5%의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새로운 혜택을 선보이게 됐다”며 “현대카드 회원의 경험의 질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다양한 제휴처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일본 신용카드 국제 브랜드사인 제이씨비(JCB)와 손을 잡고, JCB 브랜드로 발급 가능한 ▲삼성 아이디 원 카드 ▲삼성 아이디 무브 카드 ▲삼성 아이디 플러그인 카드 ▲삼성카드 탭탭 에스 총 4종을 출시했다. 일본 현지에서 해당 카드 사용 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JCB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카드 상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오는 12월까지 JCB와의 업무 제휴 기념 혜택도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삼성카드 JCB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30% 캐시백을 제공한다. 특히, 현지에서 1만엔 이상 엔화 결제 시 카드당 최대 4000엔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일본 여행·출장 수요에 맞춰, 일본에서의 원활한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JCB 브랜드로 발급 가능한 카드 4종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카드는 자체적으로 ‘위비트레블 제이(J)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일본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위비트레블 제이 체크카드는 일본 여행과 쇼핑에 특화된 체크카드다.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본 현지 3대 편의점과 더불어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이용 시 5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 내 모든 가맹점에서는 10% 상당의 캐시백 혜택이 마련됐다.

출시 기념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이벤트도 진행한다. 1000엔을 환전하는 선착순 2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1000엔을 추가로 환전해 준다. 카드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선착순 1만 명에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일본 여행에 꼭 필요한 혜택을 담아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로 여윌돈 감소”

한은 ‘2분기 자금순환 특징’

올해 2분기(4~6월)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 확대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윌돈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 특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51조 3000억원으로 전 분기(92조 9000억원)와 비교해 축소됐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자금운용액)에서 금융부채(자금조달액)를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윌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금, 보험,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자금에서 대출금과 같은 빚을 뺀 순수한 자원을 말한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윌돈이 줄어

든 이유는 가계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분기 15만 6000호에서 2분기 20만 2000호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기간 9조 7000억원에서 14조 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1분기 -5조 5000억원에서 2분기 8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은 2분기 말 기준 5797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223조 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부채도 2404조 9000억원으로 27조원 증가했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기간 2.34%에서 2.41%로 0.07%포인트(p)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1순위 326대 1

76가구 모집에 2만 4832건 접수
전용 59㎡A형 732.67대 1 기록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는 76가구 모집에 2만 4832건이 접수돼 326.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59㎡A형으로 732.67대 1을 기록했다. 이어 ▲49㎡C(685대 1) ▲59㎡B(477.67대 1) ▲84㎡A(447.9대 1) ▲74㎡(301.5대 1) 순으로 청약 열기가 이어졌다.

앞서 전날인 14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도 흥행했다.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모든 유형에서 신청이 몰리며 전 물량이 마감됐다. 특히 신혼부부(7577건), 생애최초(5353건) 신청이 두드러져 실수요자의 참여가 두텁게 확인됐다.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현대건

/전지원 기자 jiw13@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건본주택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설이 시공하며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93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 44~84㎡, 170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사당동 중심 입지로 7호선 이수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 사당역·9호선 동작역도 한 정거장 거리다. 강남순환도시고 속도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사당IC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교통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출산·육아 보험료 경감 ‘저출산 지원’ 추진

이억원 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신뢰·생산금융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보험산업은 장기 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들의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와 보험업계의 정책 목표인 ‘저출산 극복 지원 3중세트’를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중세트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IS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약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은 각 방안별로 중복지원되며, 지원 여부는 가입 기관과 무관하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출산 및 육아 휴직시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전체 어린이보험이 지원 대상이다. 할인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각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며, 할인율 또한 각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다. 단,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

로 6개월~1년을 기한으로 제공된다. 기한은 계약자가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대출에 한해 제공되며, 최대 1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없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중 세트는 오는 2026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저출산 극복 지원 3중 세트 도입 시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우리카드, AI로 자체 제작한 광고 공개

디오퍼스 라인업 첫번째 ‘실버’
한정판 호작도 생동감있게 표현

우리카드는 16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자체 제작한 프리미엄 상품 ‘디오퍼스 실버(the OPUS silver)’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AI를 활용해 디오피스 실버의 한정판 호작도를 생동감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호랑이와 까치의 형태, 붓 터치와 번짐, 자개의 반짝임 등 민화의 역동적인 표현을 AI에 학습시켜 광고를 만들었다. 사람의 손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호랑이와 까치의 역동적인 모습을 한국화 특유의 질감과 여운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앞서 우리카드는 지난 6월 출시된 ‘카드의 정석2’ 광고와 자체 캐릭터 베이비 블루 제작에도 AI를 활용한 바 있다. 카

드의정석2 광고는 맹수나 아기들의 놀라는 모습, 음악, 효과음을 직원이 AI를 활용해 직접 만들었다. 캐릭터 베이비블루는 카드 디자인의 눈과 입 모양을 그대로 살려 감쪽 놀란 감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생성형 AI 활용도가 높아진 기업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광고를 제작했다”면서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아이덴티티(정체성) 강화를 통해 업권 내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디오피스 실버는 우리카드가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 디오피스 라인업 중 첫 번째 상품이다. 고객 소비성향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카드 혜택을 원하는 고객 요구에 적합한 혜택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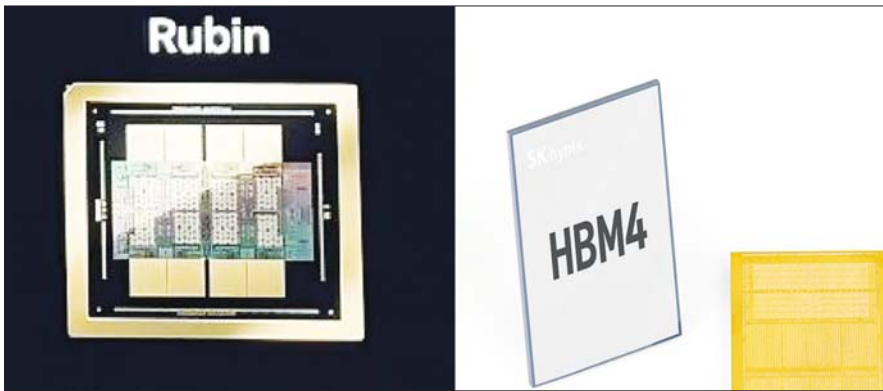
/안재선 기자

삼성·SK, HBM4 양산 시점 앞당긴다… 공급 경쟁 본격화

삼성 14Gbps 제시하며 기술 자신감
SK 세계 첫 HBM4 양산 체제 구축
4나노·12nm 공정으로 대응 강화
내년 공급 구도 윤곽 드러날 듯

삼성전자가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E의 목표 대역폭을 현재 HBM3E 대비 2.5배로 높이고 핀 속도를 13Gbps(초당 기가비트) 이상으로 제시했다. 엔비디아가 내년 블랙웰 GPU의 차기 제품 루빈 플랫폼에 탑재될 HBM4 데이터 처리 속도 기준을 기존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8Gbps)보다 높은 10Gbps를 요구한 데 이어, 메모리 업계 전반에 속도 전쟁이 불붙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오픈컴퓨트프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과 SK하이닉스의 6세대 HBM 'HBM4'의 모습.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로젝트(OCP) 글로벌 서밋2025'에서 HBM4E 핀 속도 목표치를 14Gbps 이상으로 제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6세대 HBM4와 관련해 11Gbps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는데, 7세대 HBM4E에서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핀 속도는 메모리와 그래픽처리 장치(GPU) 사이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전송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했으며 12단 적층 구조를 기반으로 10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고유의 패키징 기술인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1bnm) D램 기술을 적용해 양산 과정의 리스크도 최소화했다.

메모리 업체들은 공정 측면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를 자사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 고객사 요구나 품질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의 12nm 공정을 활용해 패키징 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내년 엔비디아 공급 물량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되는 가운데 HBM 후발주자로 불리던 마이크론도 지난달 실적설명회를 통해 HBM4 핀당 속도가 11Gbps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당초 마이크론은 엔비디아가 요구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충족하지 못해 납품에 실패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를 잠

재웠다는 평가가 따른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루빈 출시 일정에 맞춰 어느 기업이 먼저 대량 공급 체제를 갖추느냐가 향후 시장 우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론은 HBM4 첫 양산·출하 시점을 내년 2분기로 잡았으며 본격 대량 생산은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공급 일정을 크게 앞당겨 마이크론보다 빠르게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HBM4의 속도를 1Gbps 높이는 것만으로도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 등으로 인해 설계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기에 수율 개선이 관건"이라며 "메모리 3사 모두 HBM4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한 상태인 만큼 내년쯤 본격적인 공급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전고체 배터리 패권 다툼 가열… 韓, '속도전 시동'

中·日 추격 속 국내 긴장 고조
삼성SDI, 2027 상용화 목표
LG엔솔, 오창서 파일럿 가동
SK온, 28·29년 투트랙 추진

전기차를 넘어 인공지능(AI)·로봇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놓고 한중일 3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일본이 완성도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적용해 발화 위험을

낮추는 한편 에너지 밀도를 높여 차량 경량화와 주행거리 향상에도 유리하다.

삼성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 조성한 고체 전해질 소재 개선과 무음극 기술을 기반으로 음극 부피를 줄이고 양극재 비중을 늘려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900Wh/L급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준비 로드맵을 공개하고 수원 연구소 내 전용 파일럿 라인 'S라인'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성능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공장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이며 2030년 황화물계 양산을 목표로 한다. SK온은 고분자·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며 고분자 산

화물 복합계는 2028년, 황화물계는 2029년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과 일본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병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CATL과 BYD는 각각 2027년 시험생산,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고선하이테크는 자체 전고체 배터리 '진시'의 파일럿 라인을 2GWh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설비에 착수했다. 개발 초기 대비 에너지 밀도를 50% 이상 높였으며 2027년 일부 전기차 탑재를 시작으로 2030년 대량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도요타와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의 파일럿 및 양산 시설을 구축 중이며 2030년까지 생산성 향상, 비용 측면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는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을 2029~2030년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2028년 전후로 초기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대비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로봇·AI 기기 등 고성능 전력 시스템에도 유리하다"며 "중국이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위기감 속에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김영상 상무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우수기술 설명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수기술 설명회' 개최

"협력사 신기술 확보 지원"

삼성전자가 협력회사와 함께 기술혁신의 길을 모색하는 상생의 장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함께 '2025 우수기술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우수기술 설명회'를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COMPA, KISTA, 협성회(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회사 협의회)와 함께 '산·학·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설명회에는 104개 협력회사 경영진과 연구원, 45개 기술협력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는 사전에 진행한 협력회사들의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AI와 스마트제조 ▲기술보호 ▲산업 안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 협력회사들은 '우수기술 설명회'를 통해 필요 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정부 기관별 다양한 R&D 지원 제도를 소개받아 기술 도입과 제품 양산화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삼성전자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주제는 최근 산업계 주요 관심사인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사례와 기술 보호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차현정 기자

삼성, '보다폰' 유럽망 핵심 공급사 선정

AI 네트워크 자동화 등 솔루션 공급

삼성전자가 글로벌 통신사업자 보다폰의 유럽 지역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 핵심 공급사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가상화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수년간 유럽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과 품질과 안정성이 입증된 가상화네트워크 솔루션으로 기반으로 보다폰이 추진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가상화 기반 4G·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다폰의 독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상화기지국(vRAN) ▲AI네트워크 자동화를 위한 통합소프트웨어 솔루션 'NOS' ▲AI 에너지 절감 자동화 솔루션 'AI ESM' ▲5G 칩셋을 탑재한 대용량 다중입출력 기지국 등 최신 기술 라인업을 공

급한다.

가상화 기지국은 기존 하드웨어 장비의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해 범용 서버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 삼성전자의 vRAN은 소프트웨어 기반 구조로 고성능 통신 품질을 보장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 통신 사업자들이 AI 등 최신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AI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 '삼성 코그니티브 NOS'는 네트워크 설치·운영·최적화 과정에서 효율적 관리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여기에 포함된 'AI ESM'은 고도화된 AI 모델과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트래픽 변화와 네트워크 환경을 자동 분석,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해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정희준 기자 nauta@

HD현대일렉, 글로벌 HVDC 시장 공략

히타치에너지와 기술협약 체결

HD현대일렉트릭이 초고압직류송전(HVDC)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히타치에너지와 손잡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HD현대일렉트릭은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서 히타치에너지와 'HVDC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HVDC 시스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앞으로 HVDC 프로젝트의 최적 계약 모델과 실행 구조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국산화 정책 방향

에 따라 변환설비·변압기·제어시스템 등 HVDC 송전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최적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압형(VSC) HVDC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 적용되는 모델로, 실시간 양방향 전력 흐름 제어가 가능해 재생에너지 연계에 적합하다. 스웨덴 히타치에너지는 전 세계 70% 이상의 전압형 HVDC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전압형 HVDC 사업인 완도-동제주 구간 시스템을 준공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 사업에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한 바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히타치에너지와의 HVDC 기술협력과 함께 울산 사업장 내 건설 중인 신공장을 HVDC 변압기 전용 생산시설로 활용해 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연말 인테리어 수요 잡아라”… 가구·건자재社, 판촉 사활

LX하우스 31일까지 ‘지인페스타’ 상품권 등 최대 1100만원 상당 혜택

현대리바트 신규고객에 ‘웰컴쿠폰’ **KCC** ‘스마트 테크 클럽’ 공식출범 **한샘** 27일까지 ‘썸워크’ 추가 진행

건자재·가구 회사들이 가을 막바지에 고객들을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방산업인 주택시장이 가뜰이나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관련 시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관련기업들에 따르면 LX하우스는 이달 31일까지 LX Z:IN 브랜드 최대 할인 행사인 ‘지인페스타’를 펼치고 있다.

LX하우스는 지인페스타를 통해 ▲최대 300만원 상당 패키지 구매 시 혜택 ▲인테리어 계약금액별 최대 5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인테리어 5000만원 이상 계약 고객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 상당 경품 추첨 혜택 등 최대 1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선사한



LX하우스 지인스퀘어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바닥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LX하우스

다. 특히, 창호의 경우 더블로이 유리를 적용한 ‘LX Z:IN 창호 뷰프레임’과 중문을 패키지로 함께 구매할 경우 최대 125만원 상당의 할인 및 상품 증정 혜택을 제공해 노후 창호 교체 공사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리바트는 12월4일까지 침대,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가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온라인몰 신규 회원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웰컴 쿠폰을 선물하고, 세계가구 구매 고객을 위한 앱전용 장바

구니 쿠폰도 제공한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침실, 거실, 서재·자녀방, 식탁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도 펼친다.

또다른 계열사인 현대L&C는 최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오프라인 체험·상담·구매 공간인 ‘STUDIO H’를 새로 오픈,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KCC는 자율주행 물류로봇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바닥재 전문 파트너 인증 네트워크인 ‘KCC 스마트 테

크 클럽(KCC SMART TECH CLUB)’을 공식 출범하고 시장을 추가로 공략하고 있다. KCC는 또 공식 창호 대리점의 비교 견적을 통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O2O 플랫폼인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를 새로 열었다. 이를 통해 대리점 고객들은 역경매 방식의 스마트 견적으로 투명한 가격 비교에 합리적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창호를 구매할 수 있다.

한샘은 지난날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하반기 최대 세일 행사인 ‘썸페스타’를 진행한데 이어 이달 27일까지 ‘썸워크’를 추가로 진행한다. 썸워크에선 겨울 옷 정리를 위한 수납장과 불박이장 등을 최대 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수납침대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계열인 신세계가사는 창립 43주년을 맞아 오는 11월9일까지 감사 할인전을 펼친다. 단품 할인, 패키지 특가, 매장 단독 행사까지 폭넓은 혜택을 마련한 이번 행사에선 특히 결혼과 이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파, 침대, 매트리스, 다이닝 가구 등 생활 가구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

세계가사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수면 브랜드 ‘마테라소’는 이번 가을 눈에 띄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몬스는 이달 말까지 ‘가을, 가구에 빠지다’ 행사를 통해 소파(신제품), 침대 및 매트리스, 식탁 등 다양한 제품을 15%에서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시몬스도 오는 11월2일까지 ‘블랙 시몬스 데이’ 프로모션을 통해 공식 온라인몰에서 매트리스, 프레임, 베딩류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한편 에이스침대는 내년 12월 말까지 산불 피해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ESG 경영을 추가로 펼친다. 이는 산불이 심했던 경북 안동, 영덕, 청송, 의성, 영양 지역 고객들에게 매트리스 등 구매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 점포는 에이스침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을·겨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수요를 잡기위해 기업들의 판촉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조선업계 ‘고부가선박 효과’ 수익구조 개선

3분기 영업이익 최대 1200% 급증
3년치 이상 고선가 수주물량 확보

조선업계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에 따른 일회성 비용 부담에도,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물량이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 구조가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초호황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3분기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HD현대중공업의 3분기 매출을 4조150억원, 영업이익을 481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2%, 영업이익은 133.3%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178억원으로 81.7% 늘고, 한화오션은 3488억원으로 1263.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3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조건으

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300억~400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확대에 따라 수익 구조가 한층 안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현재 3년치 이상의 고선가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 본격화에 따라 수익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수주에서 인도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산업 구조상 과거에 체결한 고단가 계약이 이제 매출로 반영되면서 마진율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규 건조 선박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2021년 약 127포인트 수준에서 지난해 말 약 189포인트까지 상승했다. 불과 3년 만에 지수가 50% 가까이 오르며 고선가 수주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한국 조선사들이 앞으로도 3년치 인도 물량의 수주잔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중

심으로 한 글로벌 LNG 프로젝트 본격화와 노후 스티터빈선 교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확대는 상선뿐 아니라 해양방산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고 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선박법(SHIPS Act)’에는 전략상선단 250척 구축, 미국산 선박 운송 비중 확대, 현지 조선소 투자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미 해군 지원함과 전투함 MRO(정비·보수), 함정 블록 건조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조선 3사 모두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전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각사의 규모 차이에 따라 이익률 편차는 있더라도 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15일 대전 SK온 미래기술원에서 ‘제1회 미래기술원 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와 SK온 연구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SK온, 연구원 아이디어 발굴·교류 장 열어

미래기술원 학술대회 개최

SK온이 미래기술원 학술대회를 열고 기술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지식 교류의 장(場)으로 활용해 연구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SK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기술원에서 ‘제1회 미래기술원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스템, 공정, 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이 배터리 품질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제안하는 자리로 미래기술원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논문을 출품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대상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해 용접 강도를 예측하고 불량 검출 방법을 제시한 연구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고강도 알루미늄 호일의 캠버(camber) 개선 방안을, 우수상은 셀 방치시 성능 저하 원인을 규명한 연구가 각각 수상했다. /원관희 기자

코웨이·교원, 日 굿디자인 어워드 ‘본상’

코웨이 제습기, 교원 웰스 정수기가 ‘2025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나란히 본상을 수상했다.

16일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이번에 본상을 받은 ‘코웨이 인버터 제습기 23L’는 콤팩트한 크기에도 하루 최대 23L의 강력한 제습량을 구현한다. 자사 기존 모델 대비 약 3배 빠른 속도로 약 30분 만에 쾌적 습도에 도달하며 6.1L의 대용량 물통을 탑재해 물통 비움 횟수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코웨이 인버터 제습기 23L는 깔끔하고 간결한 형태에 중간 분할선을 더해 심미성을 높였으며, 부드러운 아이보리와 베이지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코웨이 황진상 디자인랩 연구소장은 “코웨이는 심미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고객의 일상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웰스도 직수정수기 ‘슬림원’이 2025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슬림원은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IF·레드닷·IDEA·굿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슬림원은 자연을 모티브로 한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코크를 채택해 지속가능한 디자인 철학을 담았다. 교원 웰스는 복잡한 요소를 덜어내고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일본식 미니멀리즘의 미학과 맞닿아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상생페이백’ 415만명에 2414억 지급

중기부, 1인 평균 지급액 5만8155원

상생페이백 접수 한달간 1058만명이 신청했다. 9월 페이백으로 총 2414억원을 지급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

백은 한 달 만에 신청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절반을 상회했고 부산(6.4%), 경남(6.0%)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25.4%), 40대(24.8%), 50대(19.6%) 순으로 높았다.

지난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페이백 지급 대상은 약 41%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만8155원이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진통… 통신비 인하 변수될까

통신사 “합리적인 대가산정 돼야”
정부 “국가자원 합당한 가치 받아야”

AI 시대 네트워크 전략 바탕으로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확정 계획

정부가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고한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통신업체들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의 핵심 쟁점인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 요구와 정부의 자원 확보,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복잡한 변수가 얹혀 있기 때문이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70㎐ 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대역 전체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쟁점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다.



LG유플러스가 6G 이동통신의 핵심 안테나 기술인 ‘재구성가능한 지능형 표면(RIS)’ 기술 검증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RIS가 장착된 유리창 앞에서 통신품질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통신사들은 6G 상용화를 앞두고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LTE 트래픽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LTE 트래픽은 10만 테라바이트(TB) 선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라는 국가 자원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파법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영 기준이 없어 정부의 재량권이 큰 편이다.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와 단위가격의 평균값을, 2021년에는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5G 기지국 투자 조건을 연계해 할인을 적용하는 등 매번 방식이 달랐다. 이 때문에 법학계를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체계 정합성에

의문이 든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짜 5G’ 논란과 통신비 인하 요구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5G가 LTE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라 품질이 떨어지고 요금만 비싸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 의원들은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5G 단독모드(SA) 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은 재할당 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2021년처럼 5G 인빌딩 투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대가를 할인해 주는 옵션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5G 품질 개선과 SA 모드 조기 전환을 유도해 통신비 인하의 명분을 찾는 방식이다.

정부는 5G SA 전환 계획 등을 담은 ‘AI 시대 네트워크 전략’을 우선 발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정책과장은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예측 가능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대가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합리적 대가 산정인 만큼 주파수의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처럼 신규 주파수 할당 기준을 재할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할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단서조항에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경매 대가를 참고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과거 경매 대가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전혀 없다.

박재운 한국외대 교수는 “지금 구조는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법률상 위임 근거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플랫폼 산업 ‘AI·광고·노동’ 검증대 올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정감사 증인 출석
구글·애플 등에도 투명·공정성 검증

지난 13일부터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와 광고 공정성, 플랫폼 책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국정감사에는 주요 IT 기업들이 잇달아 증인으로 채택되며 플랫폼 산업 전반이 전방위 검증대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소환했다. 13일 열린 첫 국감에는 네이버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과 이정규 서비스 운영통합지원 전무, 최성준 네이버 뉴스 제휴위원회 정책위원장이 출석해 AI 학습 데이터 출처와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에 각 2억원씩, 총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 학습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가 13.1%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의 뉴스 데이터 무단 활용을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현재 해당 건을 심사 중이다.

14일 열린 2차 국감에서는 카카오의 ‘납치형 광고’ 의혹이 집중 질의됐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 광고 노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납치형 광고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동한 뒤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원치 않는 광고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용자 혼란과 보안 위험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15일에는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질의 대상에 올랐다. 구글에서는 원스 화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출석해 유튜브 내 유해 광고 관리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콘텐츠에 선정적·도박성 광고가 노출된 사례가 거론되면서, 알고리즘 검증과 광고 심사 기준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코리아 마크 리 사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메타 이희진 법무총괄은 계정 정지 및 콘텐츠 검열 논란에 대한 질의를 각각 받았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감에는 네이버 황순배 인사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행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권 문제 등 노동 관련 쟁점이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지니TV’, 통합형 미디어 플랫폼 강화

‘지니 TV 디즈니+ 모든G’ 선택

KT는 실시간 채널, 주문형비디오(VOD), 글로벌 OTT를 통합 제공하는 IP TV 요금제 ‘지니 TV 디즈니+ 모든G’를 1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디즈니+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OTT 콘텐츠와 약 16만 편의 VOD를 함께 제공한다. KT는 이를 통해 지니 TV를 통합형 미디어 플랫폼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니 TV 디즈니+ 모든G’에는 최신 영화와 인기 방송이 포함된다. 매주 주말 한 편의 최신 영화가 기본 제공되며 ‘살인자 리포트’, ‘킹 오브 킹스’ 등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배트맨 비긴즈’, ‘인터스텔라’, ‘인셉션’ 등 주요 작품과 함께 JTBC 예능 ‘최강야구2’,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KT 모델들이 ‘모든G 전용 메뉴’ 화면 앞에서 ‘지니 TV 디즈니+ 모든G’를 소개하고 있다. /KT

이야기’, 미국 드라마 ‘프렌즈’, ‘NCIS’ 등도 시청할 수 있다.

KT는 지니 TV 첫 화면에 ‘모든G 전용 메뉴’를 신설해 고객이 제공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하고 광고나 추가 결제 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태블릿 기기에서도 ‘지니 TV 모바일’ 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팀네이버,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강화

美 뉴욕 ‘UKF 꿈 페스티벌’ 참가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이 16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인창업자연합(UKF)의 꿈 페스티벌에 참가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의 연결 강화에 나선다.

UKF는 북미 스타트업 네트워크인 ‘82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지난해 4월 공식 법인으로 설립된 북미 최대 한인 창업가 단체다. 매년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와 포럼을 열어 창업자와 투자자 간 교류,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은 이번 행사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며, 주요 연사들이 별도 세션을 통해 콘텐츠와 버추얼 기술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행사 첫날에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

표가 ‘웹툰의 등장: 새로운 스토리텔링 포맷의 글로벌 부상’을 주제로 웹툰의 시작과 성장 과정, 글로벌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오후 네이 버 리얼타임 엔진 스튜디오 리더와 송지철 네이버 프리즘 스튜디오 리더가 공동 세션 ‘지금은 버추얼 시대: 버추얼 콘텐츠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를 진행한다. 두 연사는 네이버의 확장현실(XR) 프로덕션 기술과 버추얼 크리에이터 시장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 리더는 이어 ‘K-버추얼 헌터스: 글로벌을 매혹시킨 창업가들의 도전’ 세션에서 모더레이터로 참여한다. 네이버 D2SF가 투자한 버추얼 IP 스타트업 스킨, 실시간 모션캡처 AI 스타트업 무빈 등과 함께 글로벌 버추얼 트렌드와 창업 생태계의 기회를 논의한다. /최빛나 기자

LG U+-유튜브, ‘유쓰 쇼츠 페스티벌’ 3000여명 참여

총 6800여개 영상 접수

LG유플러스는 유튜브와 공동으로 진행한 영상 공모전 ‘유쓰 쇼츠 페스티벌’이 3000여 명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두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800여 개의 영상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110편 이상이 업로드됐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의 Z세대 전용 브랜드 ‘유쓰(Uth)’를 중심으로, ‘복잡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주제로 자유롭게 쇼츠 영상을 제작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 분석 결과, 응모자의 약 77%가 10~20대로 나타났다. Z세대 특성을



LG유플러스가 유튜브와 함께 진행한 영상 공모전 ‘유쓰 쇼츠 페스티벌(Uth Shorts Festival)’에 3000여 명의 고객이 참가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은 유쓰 쇼츠 페스티벌 출품작. /LG유플러스

반영한 주제와 쇼츠 포맷의 친숙함이 높은 참여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 외에도 30대와 60대 참가자도 일부 포함

/김서현 기자

코스피 연일 최고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상승세 견인

증권가 ‘제2의 삼성전자’ 찾기

3분기 ‘반도체 업종’ 실적 기대감
디스플레이·조선·상사 등도 포함
LGD·포스코퓨처엠·대덕전자 유망

최근 증권가가 ‘제2의 삼성전자’ 찾기에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깜짝 실적(3분기 영업이익 12조원대)을 낸 뒤 상승세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실적 개선 기업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7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성장에 예상된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경우, 약 57조원으로 성장률도 7.2%로 줄어든다.

NH투자증권 역시 지난 12일 기준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77조



ChatGTP로 생성한 ‘올라가는 코스피 증시를 기대하며 투자 분석 중인 투자자들’

5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 최근 20영업일 동안 8% 상향 조정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반도체(9.0%), 에너지(6.2%), 건설(4.6%), 디스플레이(38.7%) 업종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업종은 단연 반도체다. 통상적으로 코스피는 3분기에 부진한 실적 흐름을 보여왔지만, 올해는 반도체 업황의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된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코스피의 3분기 실제 영업이익은 추정치 대비 다소 부진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3분기는 반도체 호황 국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추정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분기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성적표를 공개한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매출을 발표하며 ‘깜짝 실적’을 내놓았

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매출 최초로 80조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81% 증가한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17.4% 상회한 것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10조9142억원으로 55.25% 성장에 예상된다. 분기 최초 영업이익 10조원 돌파다.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따른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 등에 대한 주목을 언급한다. 하나증권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업종군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상사 등을 꼽았으며, 교보증권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자본재 등을 언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호텔·레저 등을,

현대차증권은 반도체,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 등을 제시했다.

정상희 교보증권 연구원은 “3분기 이익 컨센서스의 상향 추세가 크게 나타난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기계, 상사·자본재, 증권 업종”이라며 “과거 동분기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상 5개 업종이 실적 기대감을 높인 일등공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포스코퓨처엠, 대덕전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SK, 유한양행 등을 제시했으며, 교보증권은 현대로템, 하나금융지주, LG화학, 크래프톤, 미래에셋증권, 현대글로비스, 에코프로비엠, 에이피알 등을 예상했다. 하나증권은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키움증권, 산일전기, 한국금융지주, LG이노텍, 더존비즈온 등을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글로벌엑스, 美 ETF 운용자산 100조 돌파

미래에셋운용의 해외 ETF 자회사 7년 만의 성과… 101개 ETF 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ETF 운용 자회사인 글로벌엑스(Global X)가 미국 현지 운용자산 100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 인수 이후 7년 만의 성과로, 미국 ETF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6일 “글로벌엑스의 미국 내 운용자산(AUM)이 735억 달러(약 104조9990억원)를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글로벌엑스는 15일 기준 미국에서 총 101개의 ETF를 운용 중이다.

2018년 미래에셋이 글로벌엑스를 인수했을 당시 운용자산은 약 100억 달러(약 8조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3년 말 424억 달러, 2024년 말 53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며 인수 7년 만에 13배 성장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7.7%로, 같은 기간 미국 ETF 시장 성장률(20.2%)을 크게 웃돌았다.

글로벌엑스는 테마형과 기술혁신 중심의 ETF로 현지 투자자층을 넓히고 있다. ‘Global X Defense Tech(SHL D US)’는 유럽 방산기업 비중을 확대



글로벌엑스(Global X) 임직원들 단체 사진.

/미래에셋자산운용

하고 AI 기반 방산주를 포함해 지정학적 분산 효과를 높였다.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AIQ US)’는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올해에만 약 28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커버드콜 ETF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BC CC US)’과 AI 모델 기반 채권형 ETF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GXIG US)’를 출시하는 등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AI 반도체 및 양자컴퓨팅 산업에 투자하는 ‘AI Semiconductor & Quantum(CH PX US)’ ETF도 상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자산은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에서 운용 중인 262조원 규모로, 국내 ETF 전체 시장(약 25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12번째로 큰 ETF 운용사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혁신·글로벌경영부문 총괄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ETF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ETF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ETF 운용사로서 한 단계 더욱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3분기 일평균 증권결제대금 27.4조 집계

예탁결제원, 전년비 10.2% 늘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분기(7~9월) 하루 평균 증권결제대금이 2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4조8000억원)보다 10.2% 늘어난 수치다. 결제유형별로 보면 주식결제대금은 하루 평균 2조2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채권결

제대금도 25조1000억원으로 10.0%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장내시장에서의 거래도 활발했다. 3분기 장내 주식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2% 확대됐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활황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내 채권시장 거래대금 역시 하루 평균 1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3% 급증했다. 기관투자자 부문에서도 결제 규모가 늘었다. 기관 간 주식거래 결제대금은 하루 평균 1조27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권기관투자자 결제대금은 21조6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가 하루 평균 6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52.5%)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채(3조3600억원), 통안채(9900억원), 특수채(7120억원), 회사채(361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허정윤 기자

외국인, 지난달 국내증시에 6.8조 순투자

금감원, 5개월 연속 주식시장 순매수
코스닥 순매도, 채권 7910억 순투자

외국인 자금이 9월 국내 증권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됐다. 주식과 채권 모두 순매수로 돌아서며 총 6조8000억원 이상이 들어왔다. 주식은 5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고, 채권은 한 달 만에 순투자자로 전환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6조68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533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4650억원을 순매도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7910억원을 순투자했다. 매수 19조9000억원, 매도 9조8000억원, 만기상환 9조3000억원으로, 8월 순회수 이후 한 달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전체 상장증권(주식+채권) 순투자 규모

는 6조859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3조원 이상 순매수가 집계된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성 매도가 이어졌다. 유럽 지역에서도 1조원가량의 순투자자가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선진국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졌다.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1014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9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시가총액의 28.7%를 차지한다. 상장채권 보유액은 30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조6000억원 늘어 전체 상장잔액의 11.3%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외국인의 한국시장 투자심리가 회복됐다”며 “특히 대형 기술주와 중장기물 국채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장외채권시장 급등락… 9월 94.6조 발행

금투협, 발행잔액 2986.7조 기록

9월 장외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가 방향을 잃고 등락을 거듭했다. 월초에는 글로벌 불안과 재정 우려로 오르다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후 환율 급등과 미국 경기 호조로 다시 상승 마감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6일 발표한 ‘2025년 9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채권 발행 규모는 94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조3000억원 늘었다. 추경에 따른 국채 공급 확대와 8월 비수기 효과가 겹친 영향이다. 발행잔

액은 298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은 16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등급별 스프레드는 AA-와 BBB- 모두 축소됐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69건, 4조75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줄었지만 참여율은 622.5%로 상승해 투자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다.

유통시장에서는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9월 장외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143조2000억원 늘어난 516조9000억원이었다. 국채 거래량이 106조4000억원, 금융채가 20조6000억원 증가해 전체 거래를 끌어올렸다.

/허정윤 기자

장시간 근로 관행에 칼 뽑았다

제조·항공현장 50곳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두 달간 합동 기획감독
교대제·특근 남용 사업장 정조준
연속 심야노동 개선 시정 유도
위법 시 과태료·사법조치 병행
항공사 승무원 근로실태도 점검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운영이 고착된 산업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 시간 위반과 산업안전 취약 위험이 높은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제조업 현장에서 주야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 특별연장근로의 반복 활용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감독 항목에는 ▲노동 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준수 여부 ▲기계·설비 안전조치 이행 ▲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과로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등 노무·안전보건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7~8월 '의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게 보장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의무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개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등 자율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현장부터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동서발전·울산대, 태양광 모듈 세계 최고상

3D프린팅 융합 기술로 한국 첫 수상

한국동서발전은 울산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통해 개발한 '3D 프린팅 융합 태양광 모듈'이 세계적 건축디자인 시상식인 'BLT Built Design Awards 2025'에서 '올해의 건축제품 디자인상'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국이 세계적 건축디자인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최고상을 수상한 사례로, 산업 기술과 예술적 조형성을 융합한 혁신적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3D프린팅 융합태양광 모듈'은 비정형 곡면 구조의 건물 외벽에도 태양광 모듈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공지능(AI) 기반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태양광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어, 건축물의 디자인적 완성도와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

이 기술은 2022년부터 동서발전의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원으로 울산대학교 김범관 교수연구팀이 주도해왔다. 지난 8월에는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외벽에 실증 설치되어 발전 효율, 구조 안정성, 환경 적응성을 검증받았다.

'BLT Built Design Awards'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 5대 국제 건축·디자인 어워드로, 건축·인테리어·조경·건축제품 등 4개 부문에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심사한다. 올해는 68개국에서 900여 개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심사위원단은 울산대 김범관 교수 연구팀 출품작에 대해 "자연과 기술, 조형성과 지속가능성을 융합한 탁월한 작품으로, 미래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 스위스 바젤(Base)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나라살림 적자 88조... 역대 두 번째 규모

기재부 "7~8월 추경 집행 영향"

법인세 ↑ 부가세 ↓ 세수 구조 변화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8조 원에 달했다. 이 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2번째로 큰 수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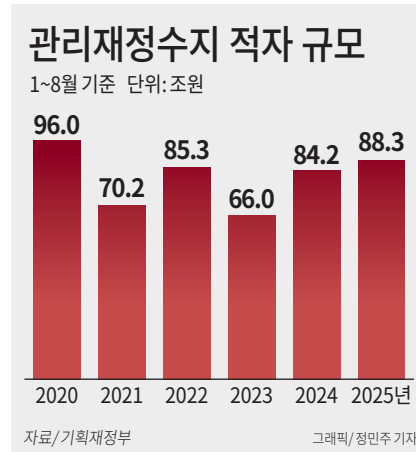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조 원 늘어난 431조7000억원, 총지출은 38조4000억 원 늘어난 485조4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금 흑자(34조6000억 원)를 제외한 지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96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7월부터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111조 원 수준이 예상되며, 그



수준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8월 집계된 적자는 추경 집행이 일부 반영된 결과지만 전액이 다 집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8월 누계 국제수입은 260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6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7조8000억 원, 소득세가 9조6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조8000억 원(+2조2000억 원), 기금수입은 148조1000억원(+4조2000억원)으로 모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20조4000억 원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구미 NG 설비 공동 인프라 구축

가스공사와 협업해 효율 극대화
공급망 이관으로 예산 2000억 절감
석탄대체 발전소 연료망 완성

한국서부발전이 한국가스공사와 구미 천연가스(NG) 공급설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효율화의 대표 사례를 완성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15일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구미 NG 공급설비 양수도 계약 서명식'을 열고, 총 1500억원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가스공사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과 김환용 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비는 서부발전이 건설 중인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연료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로, 경북 칠곡북삼에서 구미까지 약 21.5km 구간의 공급망을 잇는 사업이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올해와 내년엔 순차적으로 폐지되는 태안 석탄 화력 1·2호기를 대체하는 국내 첫 석탄 화력 대체 사업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서부발전은 당초 북삼구미 구간의 설비 건설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환상망 구축 계획과 중복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장기간 협의를 거쳐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이 해당 구간 설비를 먼저 건설해 가스공사에 양도하고, 가스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구미 군위 구간 환상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 같은 협업을 통해 건설비와 유지보수비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양 기관은 해당 사례로 정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정부와 공기업 간 긴밀한 협업으로 실현한 국가 예산 절감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도 협력해 국가시설 중복투자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향후 국가 기반시설 분야에서 유사한 중복투자 방지 사례를 지속 발굴해, 공공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문화예술로 농촌 활력 더한다

양주·김제·군위서 예술교육 진행

농협중앙회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해 농업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이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문화예술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진흥원은 만65~74세의 고령층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예

술누림 6574-예술로 채우는 여가'를 새롭게 선보였다.

농협은 해당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양주 회천농협(무용) ▲전북 김제 광활농협(미술) ▲대구 군위 팔공농협(음악·인문학)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 감으로써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창작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농촌에서는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쉽게 접하고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상무는 "농협은 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본 사업을 통해 농촌의 문화예술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며 "농심천심 운동과 연계해 앞으로도 농촌복지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오늘부터 신규기관 공모
140명 수료 성과 기반 저변 확장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이는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현장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방침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기

반을 강화하고자 도입·운영되고 있다.

지나해부터 교육기관 2개소(시설원예-순천대, 축산-연암대)를 지정·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7개 교육과정을 통해 약 1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후속 과정 개설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늘어나는 현장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시설원예 및 축산 분야에서 각각 1개소씩을 선정해 총 2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대학 및 농업 교육기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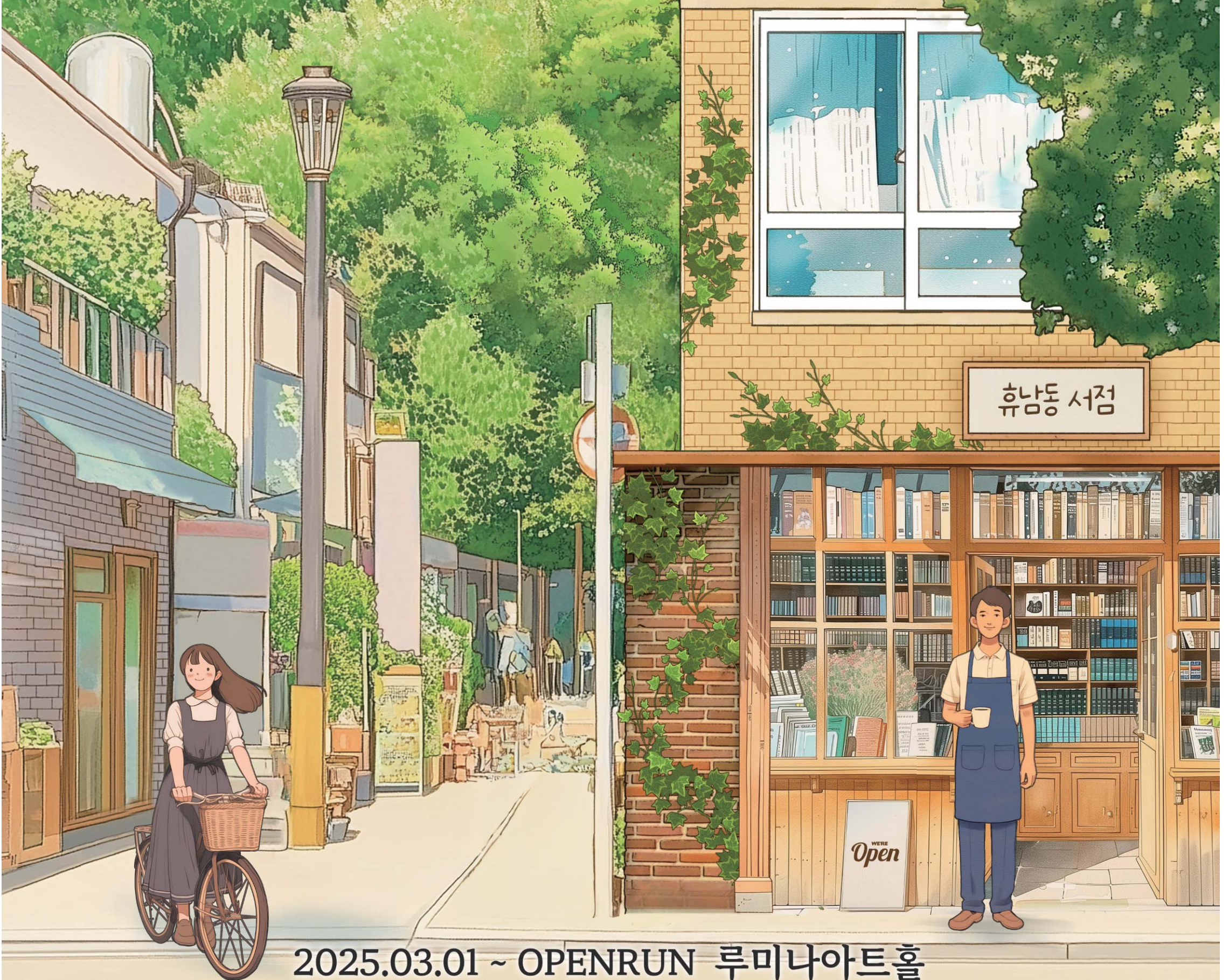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오답투성이 인생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파게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서울시, 재정비사업·車정비업 규제 완화… 영세사업자 지원

재정비촉진사업 변경심의 간소화
처리기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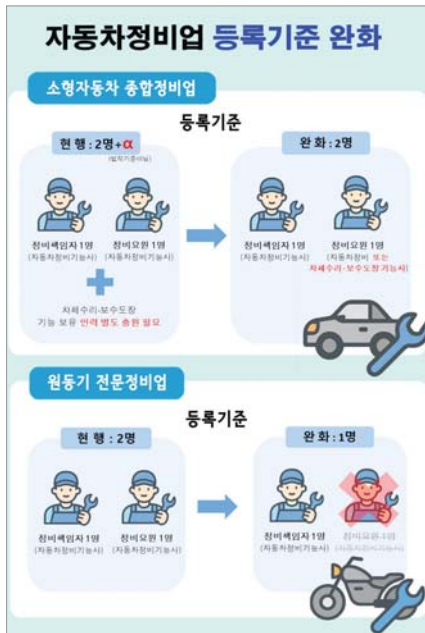
소형車종합정비업 인력난 해소
내년 3월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경미한 변경시 ‘서면심의’ 가능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서울시

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

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

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돼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 8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가족 친화 독서문화축제 진행

내일 정독도서관서 ‘온 가족 책 잔치’
도서관·평생학습관·지역서점 등 참여
다양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준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독도서관 야외정원에서 제13회 ‘온 가족 책 잔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 대표 독서문화 축제다. 마

련됐다. 올해 슬로건은 ‘책명 Book Talk, 우리가 간다!’로, 책을 매개로 가족의 일상과 놀이·문화·환경을 연결하는 참여형 독서축제다. 2013년 시작된 ‘온 가족 책

잔치’는 매년 가을 열리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행사로, 독서와 소통을 결합한 가족 친화형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 23개관을 비롯해 지역서점, 학교 독서동아리가 함께 참여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 세대가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지역과 도서관이 어우러지는 시민 중심의 독서문화축제로 발전했다는 평가다.

행사장은 ▲가족 공연과 시상식이 열리는 ‘북스타 스테이지’ ▲도서관별 체험 부스가 있는 ‘오순도순 빌리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 정원’ ▲생태전환교육을 담은 ‘초록의 서재’와 ‘지

구 수비대’ ▲휴식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명 Book Talk 힐링존’ 등 8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감이 인증하는 ‘책 읽는 온 가족’ 시상, 성남고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북퍼퓸·책갈피 만들기 등 체험활동, 태극 스티커 제작과 한글 퍼즐 찾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은 “온 가족 책 잔치는 책 읽기의 즐거움에 놀이와 체험을 더해 독서의 의미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자리”라며 “가족이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평생교육 거버넌스 출범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15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인천 평생교육 거버넌스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인하대가 재능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인천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였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남식 재능대 총장,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대학·평생교육 관계자들은 발대식에 참석해 지역기반 평생교육 협력의 방향을 공유했다.

세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도 진행하며 ▲인천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대학·평생교육기관 연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동 개발 ▲지역 내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RISE 사업과 연계한 지역혁신 인재양성 체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진 기자

남산도서관, 이용자와 ‘청렴’ 의미 되새긴다

‘청렴 소통계단’ 조성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관장 고영갑)이 ‘청렴 소통계단’을 조성하며 도서관 내 소통과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들이 함께 공감하며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16일 남산도서관에 따르면, ‘청렴 소통계단’은 청렴, 희망, 행복 등을 주제로 한 명언이나 좋은 글귀를 계단에 부착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다. 지난 8~9월 시민 공모를 통해 총 11개의 문구가 선정됐으며,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427명의 이용자와 직원이 참여했다.

계단에는 ▲“욕심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톨스토이) ▲“양심과 진실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말라”(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청렴과 정직을 주제로 한 글귀가 새겨졌다. 이를 통해 계단은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이용자들이 매 순간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남산도서관에 ‘청렴 소통계단’이 조성됐다.

/남산도서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고영갑 남산도서관 관장은 “이용자들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청렴 소통계단은 서관이 지역사회와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캄보디아 간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조기 귀국

오는 20일까지 귀국 완료 예정

경기도가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 현지 치안 악화로 조기 귀국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결정하고, 특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을 현지로 급파했다.

‘경기청년기후특사단’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34명으로 구성돼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푹주에 파견됐다. 특사단은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문화교류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외교부가 캄푹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5단계 수준)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파견지를 변경해 캄푹스페우와 시엠펜 지역으로 이동했다. 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비교적 치안이 안정돼 있고, 프놈펜 공항과의 접근성도 좋아 출국이 용이하다.

경기도는 특사단이 현지에 도착한 직후부터 외교부에 안전 협조를 요청하고 현지 상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안전 문제에는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을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귀국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불가피하게 봉사활동기간이 단축되지만, 특사단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국제협력국에 지시했다.

한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올해로 2기째를 맞는다. 이번 2기는 캄보디아(34명)와 라오스(35명)에서 활동 중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지역 역사·정체성 담은 ‘광명역사관’ 개관

1000여 점 유물 보관·전시

광명시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광명역사관’을 공식 개관했다.

시는 지난 15일 광명문화원에서 시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과 ‘광명시 학술포럼’을 열고 광명의 역사적 가치와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광명역사관은 광명문화원 2층에 자리한 광명시 최초의 공립 역사관으로, 시민이 기증한 고문서 700여 점과 민속품 300여 점 등 1000여 점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전시 공간은 ▲상설전시실 ▲보이는 수장고 ▲실감영상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이 광명의 역사와 문화를 직

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정원용, 무의공 이순신, 오리 아원익 등 광명의 대표 인물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향후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방향 등이 논의됐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역사관 개관을 계기로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미래세대에 이어지길 바란다”며 “역사관이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역사관은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 정식 개관했으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문을 연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제조과정 오픈하고 시식·체험까지 식품업계, 브랜드 신뢰 ‘수직상승’

식품업계가 공장 문을 활짝 열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제조 과정을 직접 보여주며 품질 경쟁력을 알리고, 시식과 체험을 결합한 열린 현장으로 브랜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견학을 넘어 체험 공간으로 진화하며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보다 스마트하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정관장이 운영하는 부여·원주 공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정관장 제조공장의 누적 방문객수는 7만명을 넘어섰다.

2024년 공장 견학 방문객 수는 6486명으로, 2023년 대비 83%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부여공장에는 2083명, 원주공장에는 2246명이 다녀가며 견학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부여공장의 해외 방문객 비중은 2023년 18%에서 2025년 약 22%로 늘어나며 정관장 홍삼의 세계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곳 모두 첨단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공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부여공장에서는 안내 로봇 ‘다아로’, 원주공장에서는 관절로봇 ‘텔타’ 등을 만나 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KGC인삼공사는 단순한 견학을 넘어 청년과 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일 경험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기업 정보와 특장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2024년 256명, 2025년 7월까지 526명이 참여했다. 또한, 교육부 ‘꿈길’ 교육기부 인증제 사업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하림산업은 자사 대표 브랜드 ‘더미식’과 ‘푸디버디’의 생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익산 ‘퍼스트키친(Fir



하림 퍼스트키친 키친 상영관. /하림산업

KGC인삼공사 부여·원주공장 국내·외서 인기… 누적 7만명 방문 하림산업 익산 ‘퍼스트키친’ 생산라인 견학, 체험 콘텐츠 강화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공개 ‘맛있는우유GT’ 생산과정 살펴



강릉 ‘처음처럼 브랜드 체험관’을 찾은 고객들. /롯데칠성음료

st Kitchen)’ 견학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다.

익산 제4산업단지 내 3만6000평 규모의 퍼스트키친은 식사류부터 라면, 조미료까지 생산·물류 기능을 갖춘 복합 식품단지로, 하림의 식품 철학인 ‘가장 신선한 재료로 최고의 맛을 만든다’를 구현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번 리뉴얼로 견학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미식 투어’와 어린이 대상 ‘피용 투어’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한다. ‘라면 키친(K3)’과 ‘밥 키친(K2)’, ‘메인 키친(K1)’ 등 주요 생산라인과 물류센터를 둘러보며, LED 터널과 시식 코너 등 체험형 콘텐츠도 강화했다. 견학은 평일 하루 두 차례 운영되며, 하림푸드투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부터 ‘맛있는우유GT’의 생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천안신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전면 리뉴얼하고 정례 운영에 들어갔다. 새 프로그램은 ‘밀키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우유GT 비밀 탐험’ 콘셉트로 원유 선별부터 품질 관리, GT공법 등 전 공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우유 시음회, 재활용 교육 등 체험형 콘텐츠도 추가됐다.

주류업계도 생산 공장 내 견학관을 신축하거나 리뉴얼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3년 5월부터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를 생산하는 강릉 공장에 3층 규모의 ‘처음처럼·새로 브랜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견학과 함께 대관령 암반수를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 시음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6000여 명이 방문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운영하는 ‘하이트진로 PARK’에서는 맥주 제조 전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지난해 8월 리뉴얼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은 약 1만 2000명에 달한다.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곡순당의 ‘주향로’도 대표적인 견학 공간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우리술 양조장을 견학할 수 있는 이곳은 첨단 설비로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함께 술을 빚던 전통 도구 전시, 신라 귀족들의 술자리 놀이기구인 ‘주령구 모형’ 등 술의 역사와 현재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곧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에는 AI, AR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견학 프로그램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월드푸드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숨긴 빼빼로를 찾아줘! 이벤트를 위해 랩핑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롯데월드푸드

2호선에 스트레이키즈 떴다 특별한 ‘빼빼로데이’ 이벤트

롯데월드푸드, 대규모 오프라인 캠페인 QR코드 스캔, 장소·일정 확인 가능 홍대입구역·성수역 등서 옥외광고

롯데월드푸드가 다가오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서울 주요 거점에 대규모 옥외광고를 집행하며 빼빼로데이 시즌의 열기를 더한다.

롯데월드푸드는 내달 11일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2세대를 겨냥한 참여형 이벤트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숨긴 빼빼로를 찾아줘!’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 요소를 적용, 소비자들이 일상 공간에서 빼빼로데이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기획했다. 이벤트가 적용된 지하철 열차는 빼빼로 글로벌 앰배서더 ‘스트레이 키즈’의 이미지로 특별하게 꾸며져 이동하는 동안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벤트 칸에 탑승한 승객은 열차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빼빼로와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를 풀면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 가능하며, 해당 주차의 오프라인 이벤트 장소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에 맞춰 이벤트 장소에 방문하면 재미있는 현장 이벤트와 추가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이벤트의 상세 일정과 경품은 빼빼로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와 더불어 소비자 접점을 확대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 옥외광고를 집행한다. 홍대입구역 인근 대형 전광판 4곳과 성수역, 강남역 등 55개 주요 지하철역에서 빼빼로데이 광고를 만나볼 수 있다. 11월 11일까지 도심 곳곳에서 전개되는 옥외광고 캠페인을 통해 국내 소비자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빼빼로의 ‘나눔’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롯데월드푸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빼빼로데이의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도심 곳곳에서 빼빼로를 만나며 친구, 연인,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음료 ‘진토니’ 카드커버 출시

고스티와 맞손… 총 12종 선보

하이트진로음료가 자사 캐릭터 ‘진토니’ IP를 활용한 굿즈를 출시하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붐을 일으키는 캐릭터 소비 열풍에 합류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프리미엄 카드커버 브랜드 ‘고스티(Gosty)’와 손잡고 진토니 카드커버 굿즈 12종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온 캐릭터 소비 계층이 MZ세대로 확대되면서 식음료를 비롯한 뷰티, 패션 등 전 영역의 사업군에서 캐릭터 마케팅이 활발하다. 소비자들은 캐릭터가 가진 고유의 스토리와 세계관에 공감하며, 이를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소비한다.

이번 협업은 이러한 흐름을 브랜드 전략으로 확장한 사례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진토니를 단순 굿즈가 아니라 소장 가능한 브랜드 경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진토니 카드커버는 하이트진로음료의 브랜드 콘셉트 ‘진로 낮가뱃바(낮



하이트진로음료X고스티(Gosty) ‘진토니’ 카드커버 12종. /하이트진로음료

에는 카페, 밤에는 바)’를 중심으로, 진토니의 개성 있는 모습과 인기 밈 요소를 디자인에 담았다. 또한 진로토닉워터, 하이트제로0.00 등 자사 대표 제품 디자인을 반영해 음료 브랜드의 개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제품은 초슬림 특수 원단으로 제작돼 부착 후에도 원활한 결제가 가능하며, 프리미엄 리무버블 소재를 적용해 깔끔하게 부착 및 제거할 수 있다. 고스티 특유의 무광 엠보 펄 인쇄로 마감 퀄리티도 한층 높였다.

/신원선 기자

hy, 새로운 슬로건 ‘하우 아 유’ 공개

안부 묻는 의미… 운영철학에 부합

hy가 새로운 슬로건 ‘하우 아 유(how are you)’를 발표했다. 한국야쿠르트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꾼 후 내건 첫 공식 슬로건이다. hy는 이를 통해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선정 배경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장의 의미가 유산균 발효유를 전하며 고객의 건강을 지켜온 기업 운영 철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hy는 국내 최초 유산균 발효유 출시와 함께 방문 판매 시스템을 통해 ‘일상의 건강함’을 추구해 왔다. 고객의 니즈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아간다는 뜻도 담겨있다.

hy는 50년 넘는 기간 동안 중금속 국산화, 기능성 발효유 시대 개척 등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저속노화’와 같은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만족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기업 인지도 향상도 기대한다. 슬로건의 처음과 끝인 ‘how’와 ‘you’의 첫 글자를 합치면 현재 기업명이 된다. 익숙한 표현으로 사명과 자사 핵심역량, 캠페인 방향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몸 노인돌봄활동’을 중심으로 방문활동 기반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고도화한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24 ‘와인 빅 데이’ 진행 31일까지 최대 74% ↓

이마트24가 1년에 단 두 번 진행하는 와인 프로모션 ‘와인 빅 데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와인 성수기인 연말을 앞두고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4종의 와인을 최대 74%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마트24는 3만원 미만 와인 20종을 대상으로 2명 1만5000원 행사를 진행한다. 우리/삼성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이 적용돼 ‘배알 품빠니아 블랑코’ 2병을 약 74%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라 크라즈 까베르네 쉬라’ 등 5종의 인기 와인은 특가로 제공하며, 행사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사프 안젤루스’ 등 프리미엄 와인 7종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펫테크’ 진화… 반려동물도 항암·만성질환 치료 받는다

K-제약, 동물의학 신시장 진출

큐라클 만성신부전 치료제 임상
박셀바이오 림프종 치료 범위 확대
유한양행 의료기기 사업 다각화
HLB생명과학 美수출 글로벌 진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동물 전용 의약품 개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다양한 질환에서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진입하거나 의료기기 등이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해당 시장이 고도화되는 모습이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 큐라클은 인간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후보물질을 반려동물에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노령성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해 반려동물의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을 포함한 전국 협력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만성신부전 치료제 ‘CP01-R01’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만성신장질환을 앓는 반려견 60마리에 CP01-R01과 위약을 12주간 경구 투여해 약물 안전성, 치료 효과 등을 평가한다.

CP01-R01은 혈관내피 기능 장애 차단제로, 노화, 만성질환, 감염 등에 의해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정상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에 대해 큐라클은 “만성신장질환은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반려견, 반려묘부터 축산업 등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을 표현한 이미지.

신장 기능 저하를 비롯해 노폐물 축적, 다양한 합병증 등을 동반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른 난치성 혈관질환으로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항암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도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면역보조치료제 ‘박스루킨-15’ 후속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박스루킨-15’ 적응증을 추가했다. 기존 반려견 유선종양에 이어 림프종 치료에도 쓰이게 됐다.

국내 18개 동물병원에서 유선종양 진단을 받은 반려견 61마리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박스루킨-15 병용 투여군은 수술 단독군 대비 삶의 질, 면역 활성 지표, 염증 억제 효과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별다른

이상반응 없이 안전성도 확보했다.

또 박스루킨-15는 사람의 유전체가 아닌 반려동물의 유전체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인체용 항암제를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효과와 부작용 우려가 상존한다”며 “박스루킨-15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 구축해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반려동물 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대표 제약사 유한양행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전용 의료기기 사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용 전문의약품 판매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로 사업을 넓힌 것이다.

올해 들어 급속정밀 냉각기술 전문기업 리센스메디컬과 의료기기 ‘벤티즈’와 ‘백소힐’ 마케팅 및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벤티즈는 부작용과 통증을 최소화한 기술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또 기존 피부 질환 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등 약물 의존성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3년부터는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플루토와 협업해 ‘애니콘주’를 출시하고 있기도 하다. 애니콘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함유해 골관절염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그룹이 HLB생명과학은 동물용 주사기 시장으로 진출한다.

HLB생명과학은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의 미국 수출을 위한 첫 선적을 개시해 올해 말까지 미국으로 총 180t 규모의 제품을 수출한다. 이번 수출은 미국 의료기기 전문기업 앨리스 메디컬의 요청에 따라 설비 투자를 감행, 전용 라인을 구축한 후 이뤄졌다. 양사는 향후 수출 계획까지 논의하고 있어 수출 규모를 매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HLB생명과학 측은 “이번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는 프리미엄 제품이며 동물용 주사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며 “수출 3년차에는 약 150억원 규모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BBQ

‘669데이’ 또 열린다

주문 시 당일 쿠폰 4000원 할인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브랜드 상징 숫자인 ‘6’과 ‘9’를 활용한 특별 할인 행사 ‘669데이’를 10월에도 진행한다.

BBQ는 10월 한 달간 BBQ매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날짜에 숫자 6이나 9가 포함된 날에 황금올리브치킨 시리즈를 주문하면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6일, 19일, 26일, 29일에 진행되며, 쿠폰은 해당 날짜에 발급돼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할인 대상은 BBQ의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과 매운 맛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황금올리브치킨 핫 크리스피’ 등 2종이다.

‘669데이’는 BBQ 브랜드명(‘bbq’)의 숫자 표기 ‘669’에서 착안한 캠페인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자사앱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BBQ 관계자는 “8월과 9월 진행된 행사에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 10월에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생활건강, AI로 ‘피부 장수’ 길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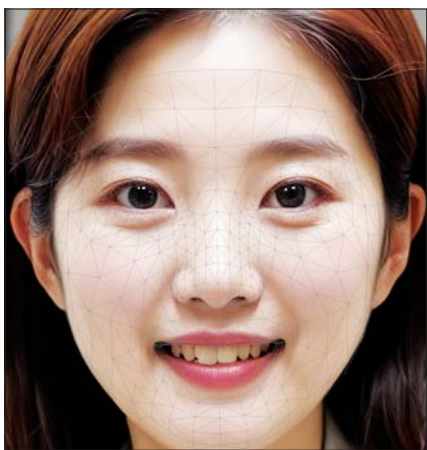
얼굴 부위별 노화 속도 과학 규명

30~40대 눈가, 50대는 입가 중점
FOX L2 등 유전자로 맞춤 솔루션

LG생활건강이 ‘피부 장수’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생애주기별 뷰티법을 연구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비전 에이아이’ 기술을 활용해 얼굴 부위별 노화 속도의 차이를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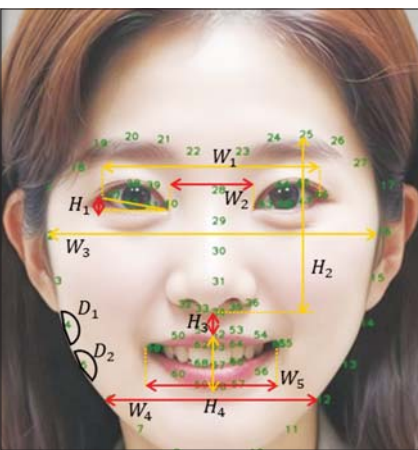
비전 에이아이는 얼굴 이미지를 분석해 피부 유형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 기술은 눈가, 입술, 얼굴 윤곽 등에서 정량화된 노화 지표를 설정하고 특징적인 노화 현상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원인 유전자를 탐색하는 데 쓰인다.

LG생활건강은 20~60대 한국인 여성



인공지능 기반 ‘안면 특징점 추출 기술’을 적용한 모습(왼쪽)과 얼굴 부위별 6가지 노화 지표를 표시한 모습(오른쪽).

약 1만6000명의 고해상도 얼굴 이미지를 확보해 ‘안면 특징점 추출 기술’을 적용했다. 얼굴 상 68개의 특징점을 기준



으로 얼굴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고 눈꼬리 처짐, 입술 비율, 얼굴 윤곽 등 연령대별 6가지 노화 지표를 정량화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개발 사업 확대

항체의약품 개발 8개월로 단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CDO) 사업 부문으로 기업입지를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5’에서 ‘신약개발 가속화: 개발 가능성 평가부터 임상시험계획 제출까지’에 대한 전문 세션을 진행했다고 16

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다 일관되고 신속한 위탁개발(CDO)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사 신약 후보물질 개발 일정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태희 항체배양PD 팀장(상무)은 “항체의약품 후보물질 선별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을 업계 표준 10개월 대비 짧은 8개월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엠에스, 혈액투석제 시장 공략

분말형 ‘에이치디비산’ 출시
원가 절감·편의성 동시 확보

제외진단 및 혈액투석액 제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는 국내 최초로 분말형 혈액투석제 ‘에이치디비산’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제조 및 판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혈액투석 치료는 혈액 내 산도(pH) 유지를 위한 산성의 A액과 알칼리성의 B액을 함께 사용하는 데 이번 허가 제품은 기존 용액 제형인

B액의 단점을 보완한 분말형 제품이다.

국내 제품 개발로는 GC녹십자엠에스가 처음 허가를 획득했으며 A액, B액, 분말형 B투석제를 모두 갖추게 됐다.

특히 분말형 제품은 기존 용액 제형 제품 대비 부피가 작고 가벼워 물류 및 운송비를 낮출 수 있어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 또 수입 제품이 밀봉형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용기와 뚜껑이 분리되는 개봉형 구조를 적용해 의료진 편의성을 높였다.

/이청하 기자



2025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생중계 포스터.

/CGV

CGV

가을야구 응원 새풍속

극장 생중계 매진 행렬

CGV가 ‘2025 KBO 포스트시즌’ 극장 생중계를 통해 가을야구의 새로운 관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CGV는 지난 5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2025 KBO 포스트시즌 SCREENX LIVE’가 준플레이오프까지 평균 객석율이 40%를 상회하며 순항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구와 서울, 인천 등 일부 상영관에서는 매진에 가까운 객석율을 보이며 극장에서 즐기는 야구 응원 문화가 팬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CREENX LIVE는 중앙 스크린과 좌·우 벽면까지 확장된 3면 영상과 5.1 채널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마치 경기장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2D 일반 중계보다 높은 예매율과 객석율을 기록하며, ‘극장속 직관’이라는 새로운 관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 주 제 K바이오 혁신 :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 미세유체 기반 플랫폼이 이끄는 차세대 제형 혁신
강연	14:50~15:2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
	15:20~15:50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 :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15:50~16:20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 : 식품산업에서 오가노이드 활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 올레드 TV로 韓 전통 수묵 추상화 선보인다

‘프리즈 런던’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
故 서세옥 화백 작품·다큐 등 전시
아티스트-관객 토크세션도 열어

LG전자가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런던’에서 압도적인 화질의 LG 올레드 TV를 통해 한국 전통 수묵 추상화의 감동을 전한다.

LG전자는 오는 19일(현지시간)까지 런던 리젠트 파크에서 열리는 프리즈 런던 2025에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 수묵 추상의 창시자로 불리는 故 서세옥 화백(1919~2020)의 작품을 LG 올레드 TV로 전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화백의 장남인 미술가 서도호 씨가 ‘순환’, ‘기운생동’, ‘무극’, ‘산정어록’ 등 평면 회화인 원작을 생동감 넘치는 짧은 애니메이션 형태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차남인 건축가 서을호 씨는 전시 공간 연출을 맡았다.

전시장 안쪽 우측 벽면에서는 83형



LG전자가 프리즈 런던에서 수묵 추상의 거장 故 서세옥 화백의 작품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사진은 반투명 패브릭과 투명 올레드 TV, 올레드 에보를 나란히 배치해 하나의 작품처럼 구성한 LG전자의 전시 공간. /LG전자

올레드 에보를 통해 서세옥 화백이 생전에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좌측 벽면에는 ‘즐거운 비’ 원작을 전시한다.

프리즈 런던 주간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아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근 LG전자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내셔널 갤러리 런던에서 15일 LG 올레드

아트 이브닝’을 개최, 서도호 씨가 미술계 인사들에게 아버지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시킨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LG TV를 통해 서세옥 화백의 작품과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특별 전시를 연다. 한국 미술의 전통성과 창의성, 예술과 기

술의 조화를 런던에 소개할 예정이다.

프리즈 런던을 맞아 LG전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내셔널 갤러리 런던의 ‘뜻밖의 관점’도 10월 한 달 간 매주 열린다. 아티스트와 관객이 작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토크 세션이다.

LG전자는 2022년부터 프리즈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하는 등 예술 작품을 생생하게 구현하는 LG 올레드 TV의 압도적인 화질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주고, 예술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올레드 TV’라는 브랜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LG 올레드 아트’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LG전자 오헤원 MS경험마케팅 상무는 “프리즈 런던 주간에 전시를 비롯한 다채로운 올레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LG 올레드 TV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선보이며 K-아트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창용,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오른쪽)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중에 열린 제14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행



지엄한마음재단, ‘행복나눔밥차’ 진행

지엄한마음재단이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 ‘행복나눔밥차’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문학동 삼호어린이공원에서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위해 진행됐으며 GM 임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은 따뜻한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고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GM

대한항공, ‘마젤란 어워즈’ 6관왕 달성

3개 부문 6개 항목서 최고상 ‘금상’
글로벌 서비스·마케팅 인정 받아

대한항공은 미국 여행 전문 매체 ‘트래블 위클리’가 주관하는 2025 마젤란 어워즈에서 6관왕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마젤란 어워즈는 항공사, 호텔, 리조트 등 글로벌 여행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브랜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한항공은 항공사 종합(국제항공사·서비스), 항공 서비스 요소(일등석·비즈니스석·기내 식음 서비스), 항공사 마케팅(모바일앱) 등 3개 부문 6개 항목

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비스 품질과 마케팅 경쟁력 등 다방면에서 대한항공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대한항공은 올해 새 기업이미지(CI) 발표에 맞춰 기내용품들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꾸준히 펼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대한항공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 업그레이드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더욱 발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고려아연, 고려인 가족돌봄아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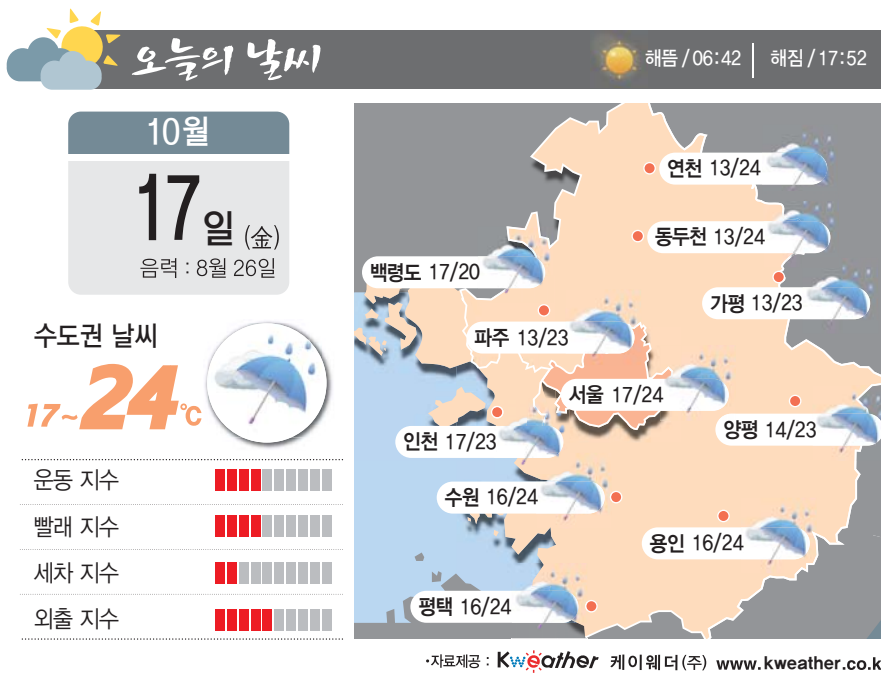
광복 80주년… 후원금 3500만원 전달

고려아연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고려가 고려에게)’을 위한 후원금 3500만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한 고려인은 옛 소련(오늘날 러시아·중앙아시아 일대) 지역에 살다가 한

국으로 입국한 한인들을 뜻한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재한 고려인 중에서도 부모·조부모를 돌보며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당 지원사업을 초록우산에 제안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비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 경제적 지원 등이 담겼다. /양성운 기자



롯데百貨, 국내 최대규모 웹툰행사 열어

오는 26일까지 ‘월드 웹툰 페스티벌’

롯데백화점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 웹툰 행사인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타운 잠실’에서 대규모 팝업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롯데월드몰에서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팝업 행사다. 35개 인기 웹툰의 굿즈를 동시에 선보이는 유통사 최초의 행사로, 5개 층에 걸쳐 11개의 팝업 공간에서 1200여 종의 IP 테마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웹툰 ‘마루는 강쥐’ 팝업에서는 100여 종의 굿즈를, ‘외모지상주의’ 팝업에서는 최초 공개 상품 90여 종을 포함한 700여 종의 굿즈를 공개한다. 또

한 ‘전지적 독자 시점’,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인기 웹툰의 한정판 굿즈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공식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웹툰 기획 전시를 비롯해 웹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쇼’, 광진 작가 사인회, 유명 제작자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되며, 22일 저녁에는 ‘2025 월드 웹툰 어워즈’도 예정돼 있다.

롯데백화점 권아미 영컬처팀 차프바 이어는 “롯데타운 잠실은 계절마다 시그니처 행사를 선보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복합 테마 단지로 성장 중”이라며 “이번 월드 웹툰 페스티벌 개최로 웹툰 마니아뿐만 아니라 웹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한국P&G, 생활용품·점자태그 기부

한국P&G가 지난 15일 ‘흰 지팡이 날’을 맞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다우니 섬유유연제, 헤드앤숄더 샴푸 등 약 2200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다화용 실리컨 점자 태그, 점자 스티커 및 저시력자용 스티커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시각장애인 친화 제품을 함께 지원한다. /한국P&G



아워홈-NH농협銀, 우리쌀 소비 캠페인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NH농협은행과 협력해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캠페인 ‘월간미술행(월간미술행)’을 진행한다. 이번 협업은 아워홈 단체급식부문의 ESG 캠페인 ‘가치 EAT GO’의 일환으로, 국산 쌀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가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워홈

인사

◆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옥

부음

▲ 장신석 씨 별세, 이영자 씨 남편상, 장성진·성철(공론센터 소장) 씨 부친상 = 16일, 일산백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18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제주도 선영. 031-910-7444

OCI홀딩스, 장애 청년 클래식 연주회 성료

OCI드림앙상블 정기연주회

OCI홀딩스는 15일 서울 중구 프르지오홀에서 ‘제3회 OCI드림앙상블 정기 연주회 사운드 오브 드림 앙상블(Sound of Dream Ensemble)’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OCI드림앙상블(OCI Dream Ensemble)은 OCI그룹의 사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OCI드림이 지난 2019년부터 음악을 전공한 장애 청년들의 예술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클래식 연주단이다.

이번 공연에는 정식 단원 5명과 함께 새로 도입된 교육 단원 제도를 통해 선발된 단원들이 합류해 총 8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섰다.

이들은 낭만주의 거장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5중주(Op. 44)’를 비롯해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15일 서울 중구 프르지오홀에서 장애인 클래식 연주단 OCI드림앙상블과 멘토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OCI홀딩스

호응을 받았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끈 영화 케이팝 대문 헌터스의 OST ‘Golden’을 연주하며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무대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OCI드림 이지현 대표는 “단순한 발표회를 넘어 음악을 통한 나눔과 성장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IZAKAYA
NAMU
이자카야 나무

EVENT

1 + 1

정식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30일(목)

장소 | 이자카야 나무 15개 전 지점

참여방법 | 정식 주문 고객 (저녁 7:30까지 주문 가능)

혜택 | 저녁 정식 6종 1+1 (동일메뉴 1+1, 단품 제외)

2026학년도 의대 MMI: 무엇을, 어떻게?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최종 관문이자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다름 아닌 MMI면접이다. 과거 의대 입시가 단순 지식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 MMI는 미래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인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본질적인 평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MMI의 본질: 단순 지식 너머의 8가지 핵심 역량

‘MultipleMini-Interview’는 짧은 면접 스테이션들을 순환하며 지원자의 다양한 면모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독특한 형식이다. 단순히 의학 지식을 묻기보다 의사로서 갖춰야 할 8가지의 핵심 역량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해진 ‘모범 답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MMI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자의 윤리적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상황 판단 및 윤리적 딜레마’ 문제이다. 가령, 응급실 의사로서 20대 남성과 70대 노인 중 한 명에게만

즉시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질문에 마주했을 때, 수험생은 선불리 정답을 찾기보다 자신의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생명 윤리의 네 가지 원칙인 자율성, 선행, 악행 금지,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의 깊은 고뇌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가 성숙한 답변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STAR 기법(상황-과제-행동-결과)을 활용해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의사의 소명 의식이나 환자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MMI 준비 전략 및 실전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스터디 그룹을 통한 모의 면접이다.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며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료 윤리 및 시사 칼럼을 꾸준히 정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관련 서적과 신문 칼럼을 꾸준히 읽으며 의료 현안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면접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자신만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준비 과정이다. STAR 기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리더십 경험 등)이 의료인의 자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단순한 나열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성장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MMI 합격의 열쇠 : 진정성과 자기 성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면접 당일에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더라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거나 질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오히려 신중함을 보여줄 수 있다.

MMI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과 ‘논리적인 답변 구성’이다. 이 과정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자질을 내면화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MMI 준비는 합격을 위한 관문을 넘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의료인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JBS 진로진학연구소장

실수요자 숨통까지 조이는 부동산 규제



기 지 수 집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정부가 다시 고삐를 죄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축으로 삼았다.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집값 안정’의 구호가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거래를 제한하는 ‘이중 규제’의 형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 부담 속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 매수 과정마다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사 지연이나 조건부 승인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 투기 수요는 차단되겠지만, 함께 묶이는 것은 결국 실수요자다.

이번에 경기 12개 지역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부담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매매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허가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거래는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진다. 특히 신도시 예정지나 역세권 개발 지역처럼 생활 기반이 밀집한 곳까지 포괄하면서 ‘투기 억제’라는 명분이 ‘시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건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지금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이나 정권

이 바뀌면 언제든 방향은 달라진다. 2020년대 초반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규제가 풀리자 누적된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억눌린 수요는 언젠가 더 큰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은 냉정하다. 인위적인 억제책은 단기적으로는 통하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반등으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규제라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서민이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부터 복원해야 한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7일 (음 8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거울은 절대 먼저 못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자. 48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60년생 실패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72년생 긴 밤이 지나면 이른 아침이 오기 마련. 84년생 어쩌면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필요.



37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49년생 내일의 일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 61년생 뒷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다시 살펴라. 73년생 문서는 변하여 비옥이 되다. 8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진행.



38년생 나의 인생 내 탓이니 잔소리 마라. 50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라. 62년생 낙심할 것은 없다.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 74년생 거짓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86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조금씩.



39년생 조상님 산소를 돌보지 못하는 심정. 51년생 고편은 아니지만 친환경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63년생 청약을 오늘이라도 신청하도록. 75년생 약자를 표방하는 감언이설이 나를 슬프게 하는데. 87년생 오후 매출이 오른다.



40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52년생 세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흐지부지 사랑도 마찬가지. 64년생 재산증여는 신중하게. 76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 88년생 아픈데 다시 다른 병이 발병.



41년생 어린 사람과 다름이 생기니 말조심. 53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참석해야 기운이 들어온다. 65년생 술을 넘치도록 마시지 말라. 77년생 오래 사는 타향이 이제는 고향집 같은데. 89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시키라.



42년생 신세를 진 사람이 빚을 갚아오는 날. 54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하라. 66년생 들어가지마라 불평만. 78년생 고서를 보고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뒷날 미래를 경계하라. 90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



43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남은 날 발전도 없다. 55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로 결국 우울감만. 67년생 언제나 오늘날 같았으면. 79년생 부자가 되려면 교만을 멀리해야. 91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44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가 온다. 56년생 가정의 화목이 언제나 고맙다. 68년생 업무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천하라. 80년생 복이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이 생김. 92년생 돈 관리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45년생 천재라도 노력 없이는 단발이다. 57년생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그물을 먼저 준비. 69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마음에. 81년생 수없이 부도가 났으나 조상님 덕에 회생된다. 93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46년생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58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70년생 과정을 중시해야 결과도 얻는다. 82년생 먼저 양보해야 하는데 늘 남이 하기를 바라니. 94년생 신용을 지키는데 상대가 미흡하면 중지를.



47년생 나이가 있어도 일단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도록. 59년생 먹기보다는 운동이 필요할 것. 71년생 제 분수도 모르고 경거망동에 주의. 83년생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은 주의를 요한다. 95년생 무슨 투자가든 재물을 얻을 수 없다.



김상회의四季 아, 옛날이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는 민원 대란이 불가피했다. 생각보다 복구가 늦어져 신원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는 물론 우편 보내는 일마저 보류되어야 했는데, 디지털 환경이 당연해진 지금 아날로그적 상황에 대한민국이 난리이다. 온라인 판매가 대세가 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가 며칠씩 올 스톱 된 것이다. 추석 한과며 과일 등 인터넷 온라인으로 명절 선물을 신청하여 보내고 받는 일들이 차질이 생겼고, 장기 보관이 어려운 신선한 식품들을 쥘여 놓는 상황이 되어 자영업자들이 울상이다. 물질적 시간적 손해도 그러하지만, 평소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자만이 아니었던가 싶다.

문명의 편리함 이면에는 그보다 더한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전기가 갑자기 끊기거나 하면 주변을 돌아보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다. 냉장고의 경우 단전상태가 발생하면 냉동고에 있던 육류 등 음식물이 녹아내리며, 병원 같은 곳은 산소호흡기나 수술기기 등의 작동을 멈춰야 하는데 이는 바로 환자들의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당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AI 시대의 개막은 이런 불안함을 더욱 증폭시킨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환경은 인류 존립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이를 보면서 과거 문화의 가장 큰 유산은 주역(周易)이 아닐까 싶다. 우주 생성 그 변화의 이치와 원리를 설명하기에 역시 소우주인 인간 삶의 적용은 실질적이기 때문이다. 지구를 터전으로 하는 이상, 옛날이여! 오지 않은 나의 미래를 진단해보는 나침반은 주역만 한 것이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2	6	9	9	1	2
6	9	1	9	6	2	8	7
9	1	9	1	8	2	6	6
7	9	6	9	1	2	8	2
1	6	8	9	2	6	1	7
1	8	2	2	9	1	7	6
9	2	7	7	8	1	6	1
2	1	7	6	6	9	1	9
6	6	1	8	1	7	9	2

8	9	7	9	2	1	1	6
2	6	1	8	1	8	7	9
6	1	6	9	1	2	8	7
9	7	8	6	2	1	1	9
1	9	9	6	7	8	2	1
1	2	6	1	9	9	6	7
7	8	1	2	8	9	9	6
6	8	2	1	7	1	9	9
9	1	9	7	6	8	1	2

윌리엄 페브르… 테루아를 담은 샤블리의 ‘골든’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내면에 있다. 사람이든 와인이든 마찬가지다. 와인마다 그렇게 테루아를 강조하는 이유다.

특히 프랑스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 샤블리가 그렇다. 포도밭을 그랑 크뤼 등급으로 지정하는 기준 자체가 토양이다. 불과 몇 발자국 차이로 크랑 크뤼와 프리미에 크뤼가 나뉘기도 한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골든’을 노래하며 내면의 빛나는 본질을 깨닫듯이 샤블리의 도멘 윌리엄 페브르에게 와인 양조는 테루아의 가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이다.

도멘 바롱 드 로칠드(DBR) 피에르-안투안 발랑 아시아 태평양 매니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윌리엄 페브르의 철학은 샤블리의 정통성과 탁월함, 순수성, 그리고 테루아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페브르는 작년 DBR 라피트 가문에 합류했다. 윌리엄 페브르 자체로는 300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와인을 맛보기에 앞서 먼저 샤블리가 어떤 곳인지 보자. 지리적으로는 부르고뉴에서 가장 북쪽이다. 와인 이름에 우리로는 발음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나 마을명이 많아 그렇지 사실 샤블



1도멘 바롱 드 로칠드(DBR) 피에르-안투안 발랑 아시아 태평양 매니저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윌리엄 페브르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왼쪽부터 샤블리 2022,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푸르썬 2020,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보로랑 2020, 샤블리 그랑 크뤼 레 프뢰즈 2020, 샤블리 그랑 크뤼 레 끌로 2022.



리 와인은 쉽다. 포도품종 단 하나, 샤도네이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 전부다.

다른 화이트 와인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샤블리의 매력은 순수한 미네랄감이다. 한 때 바다였던, 그래서 굴 등 해양 화석을 품은 토양 덕분이다. 무려 1억 5000만 년의 시간을 담은 테루아다.

윌리엄 페브르는 샤블리 와이너리 가운데 가장 많은 78ha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특히 7개 그랑 크뤼 포도밭(끌리마) 중 5곳에 포도밭이 있다.

피에르는 “샤블리 그랑 크뤼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자로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30~60년인 올드 바인 위주”라며 “소출량은 많지 않지만 그만큼 응축되고 복합적인 아로마를 지닌 와인을 만들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루아를 강조했으니 같은 그랑 크뤼, 같은 프리미에 크뤼라도 포도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집중해 본다.

레 끌로는 샤블리 그랑 크뤼의 상징과도 같은 포도밭이다. 면적도 가장 넓다. 가파른 경사와 석회질과 점토가 깊은 토양이 와인에 힘을 실어준다.

‘샤블리 그랑 크뤼 레 끌로 2022’는 맑은 황금빛에 자몽, 레몬 등 시트러스와 백도같은 핵과일, 흰 꽃과 오렌지 껍질, 부싯돌의 아로마가 복합적이다. 입안에서는 과실미는 은축됐고, 좋은 질감과 선명한 산도, 짭짤한 미네랄이 그랑 크뤼 와인의 전형이다.

피에르는 “샤블리 그랑 크뤼의 경우 2~3년 후부

터 시음 적기에 들어서지만 15년 인파이 최고 절정이 될 것”이라며 “너무 차갑게 마시기 보다는 적당한 온도로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레 프뢰즈는 그랑 크뤼 포도밭 가운데 가장 우아함을 가진 곳이다. ‘샤블리 그랑 크뤼 레 프뢰즈 2020’는 과실에 꽃향, 농축된 미네랄과 미묘한 부싯돌 아로마가 어우러진다. 입 안에서는 매끄러운 질감과 동글면서 존재감 있는 산도가 확실히 세련되고 우아하다.

테니스 선수로 비교하자면 라파엘 나달과 로저 페더러다. 샤블리 그랑 크뤼 레 끌로가 힘을 가진 나달, 샤블리 그랑 크뤼 레 프뢰즈가 정교하고 우아한 페더러다.

푸르썬은 프리미에 크뤼 포도밭이지만 그랑 크뤼인 레 프뢰즈와 바로 맞닿아 있다. 베이비 그랑 크뤼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은 애기다.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푸르썬 2020’은 과실미는 신선하면서 햇살을 충분히 받은만큼 풍성한 질감과 구조감이 인상적이다. 기본 샤블리급과 비교하면 미네랄감은 더 좋아졌고, 여운도 길다. 해산물이 나 굴과 잘 어울린다.

보로랑은 푸르썬 포도밭에 속해 있지만 좀 더 작은 구획인 단일 파셀이다. 레 프뢰즈와 붙어있고, 방향도 좀 더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거의 그랑 크뤼와 같은 조건이다.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보로랑 2020’은 풍부한 과실미와 뚜렷한 미네랄감, 우아한 질감과 집중력있는 모습이 확실히 그랑 크뤼에 한 발 다가간 모습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롯데시네마, 보이그룹 ‘엔팀’ 투어 콘서트 생중계

롯데시네마는 글로벌 보이그룹 ‘엔팀(&TEAM)’의 첫 아시아 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생중계한다.

지난 5월 일본 아이치를 시작으로 도쿄, 방콕, 후쿠오카, 서울, 자카르타, 타이베이, 호고, 홍콩에서 두 달여 간 아시아 투어를 하고 있는 엔팀은 이달 25~2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앙코르 공연을 한다.

롯데시네마는 ‘2025 엔팀 콘서트 투어 ‘어웨이 큰 더 블러드라인 앙코르 인 재팬’의 첫 공연을 25일 오후 6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건대입구, 부산 본점을 비롯한 전국 15곳에서 생중계한다. 현지 공

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국내 팬들에게도 극장에서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롯데시네마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생중계는 롯데시네마의 대표 음향 특화관 ‘광음시네마’에서도 진행돼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광음시네마의 초극저음 우퍼 사운드가 구현하는 입체 음향은 마치 공연장 한 가운데 있는 듯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또한 극장의 대형 스크린은 엔팀의 미세한 표정과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 몰입감을 배가시키며 관객들에게 극장 생중계만이 지닌 차별화된 즐거움을 전달한다.

소프라노 박유리, 韓 최초 오스트리아 무지크페라인서 무대

소프라노 박유리가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무지크페라인 골든홀에 섰다.

지난 6일 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 합창단은 소프라노 박유리와 함께 모차르트의 레퀴엠 공연을 가졌다.

비엔나를 세계 음악의 수도로 만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꾸며진 이날의 음악회 1부는 소프라노 박유리의 무대로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를 위한 콘체르토 아리아인 ‘Va do, ma dove’ K.583을 시작으로 바이올린과 소프라노의 이중창이 돋보이는 오페라 Il re pastore의

여주인공 아민타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한 아리아 ‘L’amero, sarò costante’를 연속으로 불러 큰 환호를 받았다.

음악회 2부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으로 남긴 진혼곡인 레퀴엠을 빈국립음대 합창단과 4명의 솔리스트가 골든홀에서 만드는 완벽한 음향으로 청중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세계에서 가장 음향이 뛰어난 극장으로 평가받는 골든홀에서의 소리의 깊이와 울림은 공연장을 가득채운 관객석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전달되어 연주자들의 생생한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스마트한 지배 속, 서사 있는 삶 찾아야

누군가 인스타그램 아이디어를 물어오면 참 난감하다. 계정이 없다고 답하면, 상대는 “나랑 친해지기 싫어서 안 알려주는구나”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는 마음을 문을 닫아버린다. 사실 이 SNS 앱은 들어갈 때마다 뭔가를 자꾸 사서 나오는 게 화가 나 지웠다. 사용자의 입맛을 완벽하게 간파한 알고리즘은 취향을 저격한 물건들을 줄줄이 피드에 띄웠고, 지갑은 스르륵 열렸다. 이런 일이 반복됐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

철학자 한병철이 쓴 ‘서사의 위기’를 읽다가 왜 SNS 앱을 없애고 속이 후련해졌는지 깨닫게 됐다. 우리가 자유 의지로 ‘내가 원해서 했다’고 믿었던 많은 행위들-일상 공유, 이웃과의 소통 등-은 사실 정보체제라는 신(新) 지배구조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과거 산업체제 아래에서는 규율과 감시, 명령을 통해 인간을 직접적으로 통제했다면, 오늘날의 지배는 교묘하고 매혹적이다. 첨단 기술을 등에 업은 ‘스마트한 지배’는 명령 대신 유혹을, 강압 대신 참여를 내세워 사람들을 스스로 종속시킨다.

저자는 “스마트한 지배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 필요, 선호를 소통하라고, 삶을 서술하라고, 게시하라고, 공유하라고, 링크로 걸라고 요구한다”며 “이때 자유는 억압되기는커녕 철저히 흡사된다. 자유는 결국 통제와 제어로 전복된



서사의 위기

한병철 지음/다산초당

다”고 말한다.

스마트한 지배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자유와 소통의 탈 속에 숨어 사람들이 게시하고, 공유하고, 링크를 거는 동안 스스로를 지배의 흐름에 예속시킨다.

저자는 “디지털화된 후기 근대의 인간은 끊임없이 게시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면서 별거벗은, 공허해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착한 다”며 “오늘날의 위기는 ‘사느냐, 이야기하느냐’가 아닌 ‘사느냐, 게시하느냐’가 된 데 있다”고 진단한다.

144쪽. 1만6800원.

/김현정 기자 hjk1@



▲한국시리즈 앞둔 LG, 22일 팬과 함께하는 자체 청백전·출정식 진행

▲‘10월 1승1패’ 홍명보호, FIFA 랭킹 상승…월드컵 포트2 청신호

/사진 뉴스

▲숨 돌릴 틈 없다…손흥민 비롯 해외파, 소속팀 복귀 후 곧장 출격 대기

▲‘K리그1 선두’ 전북, 정규라운드 마지막 경기서 조기 우승 도전

▲NBA 스타 웨스트브룩, 중국행 아닌 새크라멘토와 계약

▲‘홈런 5방’ 토론토, 13-4로 시애틀 완파하고 ALCS 첫 승



식품업계
공장 문 열고
브랜드 신뢰 상승
L1

metro®

Life

‘펫테크’ 진화
반려동물도
항암치료 받는다
L2



청량한 녹음 속 맑은 물소리... 자연이 만든 휴식, 일상으로

아파트의 미학(美學)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고급스럽고 단단한 외관과 어우러진 조경
개방감 극대화한 단지 배치로 조망권 확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공간 곳곳에

최근 찾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정문은 짙은 회색 금속과 석재 질감이 어우러진 구조로, 직선적인 프레임이 도심 속 단지의 정체된 이미지를 강조한다. 롯데캐슬의 시그니처 로고에서 은은한 금속광이 번져 고급스럽고 단단한 인상을 준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원당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가량 걸렸다. 해당역을 이용하면 종로3가역, 고속터미널역 등 주요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울 문산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도 수월하다.

인근에는 하나로마트와 원당시장, 롯데마트, 이케아, 스타필드 등 다양한 상업시설을 누릴 수 있다. 고양시청, 고양소방서 등의 관공서도 가깝다. 문화시설인 고양어울림누리, 성사체육공원, 성라공원, 마상근린공원, 자전거공원 등의 녹지시설이 가깝다.

롯데건설이시공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지하 6층~지상 최고 36층, 11개 동, 총 1236가구 규모, 전용면적 35~84㎡로 소형 평수 위주로 이뤄져 있다.

입주민들은 각 세대 내에 설치되는 월패드를 통해 조명, 난방, 가스, 환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고 차량 도착 알림, 엘리베이터콜, 에너지사용량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개방감을 극대화한 단지 배치로 열린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조망형 이중창을 적용해 입면 특화 및 세대 내 조망권을 향상시켰다.



석가산·수목·수경시설 조화로운 휴식공간 티하우스, 팽나무 어우러진 커뮤니티시설 자연 표현한 조각상으로 단지 품격 높여

육생비오톱과 마스터피스클리프(수생비오톱)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이다. 육생비오톱에는 곤충,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 돌무더미, 나무더미를 만들고 들꽃과 나무를 심었다.

수생비오톱에는 무늬갈대, 부들, 속새, 셀렉스, 창포 등을 조성했다.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꿈을 지키고 자 모두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공간이다.

노블헬스포레에서는 각 운동기구의 운동 부위를 확인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다. 단지 내 운동기구를 통해 온 몸 곳곳을 움직이며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근력,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자세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노블아일랜드가든은 석가산과 수목, 수경시설이 조화롭게 연출된 한 폭의 그림 같은 산수점경원이다. 시원한 바람과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이웃과 담소를 나누거나 가족 간의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다.

노블리티마운트는 팽나무 그늘과 더불어 티하우스와 함께하는 정원이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차 한 잔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두 점의 조각상은 단지의 품격을 높여준다. '리사일런스(Resilience)-만월'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나무들이 숲을 형성하는 경계를 원형으로 조형화하고 만월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인간의 꿈, 소망, 길, 복을 염원하고자 한다.

노블테라스가든 입구에는 '퍼펙트 러빙'이 있다. 성장해가는 자연의 본성을 표현했다. 사람들과의 사랑 안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완숙한 삶을 상징한다. 노블테라스가든에서는 전신 운동을 하며 힘들 땀



앉아서 쉬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를 가볍게 걸으면서 향긋한 나무 향기를 맡을 수도 있다.

단지 내에는 롯데캐슬만의 고급 커뮤니티센터인 캐슬리안센터가 있다. 실내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스크린골프장, 샤워실, 맘&키즈카페, 놀이 교육 공간,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마련돼 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해상구조대', '클라우드힐', '숲 속 미로' 등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가 마련된 놀이터는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한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1 팽나무 그늘과 티하우스가 있는 휴식공간 '노블리티마운트' 2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와 쉴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된 '노블레헬스포레' 3 석가산과 수목,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노블아일랜드가든' 4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 표현한 '리사일런스(Resilience)-만월' 5 성장하는 자연의 본성을 표현한 '퍼펙트 러빙'
/전지원 기자